

시간의 흐름을 담은 그릇 만들기

제 출 자: 김규리

지도교사: 이정상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간디학교에 다니며 내가 보고 느꼈던 것들을 도자기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더불어 내가 아직 잘 모르는 도자기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다. 도자기의 다양한 종류와 색, 작품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 이천 도자기 축제, 여주 도자기축제, 수원에 있는 행궁동에서 공방 지구에 있는 도예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도자기 가게와 전시를 보고 왔다.

작품은 월별로 대표적인 학교 일정을 뽑아 열 두 개의 그릇을 만들었다. 그 중 두 달은 나의 방학을 주제로 한 그릇을, 나머지 두 달은 나의 학교 일상을 주제로 그릇을 만들었다. 작품이 나의 의도와 잘 맞는 것 같는지 간디인 들에게 설문을 했을 때 총 21개의 평가를 받았다. 사람들의 평이 대부분 좋게 나왔고 작품평가를 보니 사람들이 생각한 나의 작품이 내가 의도했던 작품과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느껴진다.

목차

I. 서론

1. 논문의 동기
2. 논문의 목적
3. 연구 방법 및 구성

6. 유약이란

- 1) 유약 선정
 - 2) 유약 사용 방법
7. 초벌 방법
 8. 재벌 방법

II. 본론

1. 도자기란?
 - 1) 도자기의 종류
 - 2) 흙의 종류
 - 3) 백토선정의 이유
2. 물레란
 - 1) 물레의 정의
 - 2) 물레 선택 이유
3. 내가 담고 싶은 '시간의 흐름'
4. 작품 논문을 도자기로 선택한 이유
5. 작품 구상/작품 단계
 - 1) 설문 대자보와 스케치
 - 2) 성형 및 그리기

III. 결론

1. 연구의 성과와 한계
2. 작품 평가
 - 1) 간디인 평가
 - 2) 전문가 평가
 - 3) 나의 평가
3. 논문을 마치며

<감사의 글>

<참고 문헌>

<부록>

I. 서론

1. 논문의 동기

간디학교를 다니면서 흥미 있거나 좋아하는 분야를 쉽게 찾지 못했다. 무엇을 해봐도 재미있는 것을 찾지 못했다. 작년에 도예기초 수업을 듣고 도자기에 관심이 깊어졌다. 그 결과 지금까지 도예 작업장을 선택해서 배우고 있다. 그러나 작업장과 수업만으로는 배우는 것이나 스스로 만드는 것에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논문으로 도예 작품을 어떻게 구상하고, 빚고, 마무리하는지 더 알고 싶었다.

그렇게 생각하던 중 ‘우리학교 사계절 풍경을 도자기 그릇에 담아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렇지만 사계절을 담기 위해서는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시간의 흐름을 담은 그릇 만들기’로 주제를 좁혔다.

내가 표현을 할 때 도자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도자기 이외의 방법에는 그다지 관심 가지 않았다. 그래서 결정했다. 도자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도자기를 작품으로 만들어보려고. 또한 도자기에 표현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그림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잘 표현해주는 것 같아 그렇게 결정했다.

2. 논문의 목적

간디 학교에 다니며 내가 보고 느꼈던 것들을 도자기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은 ‘그릇을 만들고 페인팅 작업을 하고 구워진다.’ 나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지만 더 나아가 그릇은 어떻게 구워지는지, 색은 무엇으로 내는지 등은 아직 잘 모른다. 이번 논문을 통해 이런 것을 알고 싶다. 사람들이 제천간디에서 겪은 각자의 일상을 떠올리며 추억을 되새겨보거나 내 작품에 공감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3. 연구 방법 및 구성

도자기에 전문적으로 색을 입힐 수 있는 재료와 도자기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디자인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천 도자기 축제, 도자기 전시 등등 도자기 관련 행사와 도예가 분들이 운영하시는 전시들을 다녀온다.¹⁾ 그리고 가정학습 때, 학교에서 물레 실력을 키우기 위해 틈 날 때 마다 꾸준히 물레를 연습한다. 내 작품에 넣을 그림을 위해 그림판과 스케치북으로 도안을 스케치한다. 작품의 구성은 학교에

1) 탐방 내용과 결과는 부록에 담았다.

서의 대표적인 일정/행사를 표현한 그릇 여덟 점, 내 방학을 주제로 한 그릇 두 점과 나의 학교 일상을 주제로 한 그릇을 두 점으로 만든다. 추가로 내가 ‘나’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그릇에 그려내려고 한다. 만드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II. 본론

1. 도자기란?

1) 도자기의 종류

우선 도자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부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점토로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고, 그것을 말린 다음 그 위에 유약을 입혀 높은 온도에서 구운 것을 말한다.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 어떤 형태로도 만들 수 있고 자기감정까지도 표현을 할 수 있는 재료로, 마르면 쉽게 굳어지는 성질이 있는데 도자기는 이와 같은 성질을 잘 이용하므로 다른 공예품에 비해서 쉽게 접근하여 만들 수 있다.²⁾

도자기의 종류는 크게 토기, 석기, 도기, 자기로 나뉜다. 토기는 대부분 유약을 바르지 않는다. 두드렸을 때 매우 둔탁한 소리가 난다. 원시시대의 기물, 화분, 기와 등이 토기류에 속한다. 석기의 소지 색상은 일반적으로 청회색을 띠고 있다. 유약을 바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험실의 실험 용기, 전기용품 등에 사용된다. 도기는 위생도기, 고급 식기류 등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되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다. 자기의 흙색은 백색이다. 두드렸을 때 금속음이 나며, 깨어진 면이 조개 껍질모양으로 나타난다. 또한 굽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대형 기물을 구울 때에는 휘거나 꺾이는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³⁾

2) 흙의 종류

흙의 종류는 청자토, 백자토, 옹기토 등이 있다. 먼저 청자토는 청자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한다 하여 청자토 라고 하며 청토 또는 잡토 등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다. 철

2) ‘도예기초 실기’한홍곤,(1997)10p 발췌한 걸 내 말로정리해서 씀(2018.9.29.)

3) ‘도자 공예개론’이진성,노덕주,이지연,정재진,이용석,(2008)발췌한 걸 내말로 정리해서 씀(2018.9.29.)

분이 들어있어 누런색 또는 약간 붉은 색을 띠고 있으며 제일 많이 사용한다. 장식은 표면에 그림을 그리지 않고 조각 또는 상감을 한다. 백자토는 흰색을 띠고 있어 백토라고 불리며 백자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한다. 표면에 주로 그림을 그리지만 요즘에는 조각도 많이 하고 있다. 옹기토는 항아리나 독을 만들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재료로 철분이 많고 점력이 좋으나 굽는 온도가 낮다.⁴⁾

3) 백토선정의 이유

그림을 그리고 구웠을 때 색과 그림 표현을 한 작품이 깔끔하게 잘 나온다. 다른 흙보다 백토가 더 잘 표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백토로 선정했다. 물레연습을 할 때도 백토를 사용했었고 백토 말고는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백토를 쓰게 되었다.

2. 물레란?

1) 물레의 정의

물레는 간단한 대칭형 그릇을 단시간 내에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숙련된 도예가가 작업하는 것을 보면, 믿기 어려울 만큼 간단하고 쉽게 기물이 성형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본인도 금방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점토가 생각보다 단단하고 힘도 필요해서 생각만큼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또한 옛날 도공들은 손이나 발을 사용해 물레를 돌렸지만, 현재는 대부분 전력으로 돌리는 전기 물레를 사용한다. 따라서 예전에 비해 기술을 익히기가 훨씬 쉬워졌다. 물레의 종류는 손 물레, 발 물레(목물레), 기계물레, 옹기물레(독물레) 등으로 나뉜다. 물레가 기술적으로 발달함으로써 손으로 빚거나 흙줄 쌓기 등의 방법보다 쉽고 빠르게 좌우가 정확히 대칭되는 가벼운 도자기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⁵⁾

2) 물레 선택 이유

처음 물레를 접하게 된 건 도예 작업장 시간에 주현 쌤이 전기 물레를 가르쳐줄 때 기물을 만드는 모습이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릇을 물레로 한 번에 만들어 내니까 신기했고 나도 물레를 배우고 싶었다. 그래서 작품을 만들 때 물레작업으로 만들게 되었고 작품을 만들면서 물레를 제대로 배울 수 있었다. 물레 말고도 점토를 길게 만들어 쌓아올리는 코일링 기법, 한 덩어리의 흙을 가지고 작업하는 핀칭 기법, 흙을 밀대로 평평하게 밀어 만드는 판 성형 기법 등 많은 성형 기법들이 있지만 물레로 만드는 그릇도 재밌겠다고 생각해서 물레로 그릇을 만들게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하고 싶어서 선택한 게 큰 것 같다.

4) '도예기초 실기'한홍곤.(1997)18p발췌(2018.10.14.)

5) '물레 성형기법'신미영.(2004) 11p 발췌한 걸 내말로 정리해서 씀(2018.8.30.)

3. 내가 담고 싶은 ‘시간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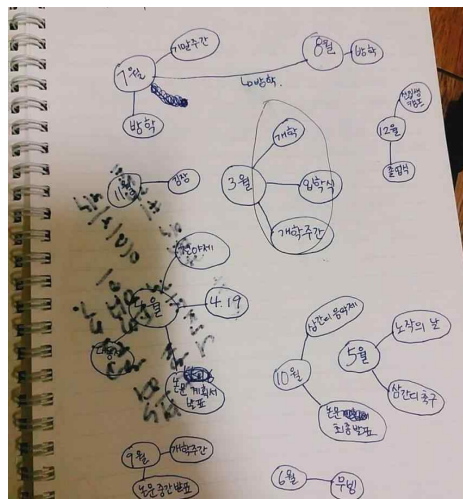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그릇에 기록하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 시간의 흐름을 담은 그릇 만들기로 주제를 정했다. 그릇에는 밥도 담기고 다른 것들도 담길 수 있지만 내가 학교에서 지낸 시간을 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의 작품을 보고 간디학교에서는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와, 그릇에 담고자했던 이야기들을 재밌게 봐줬으면 한다.

4. 작품 논문을 도자기로 선택한 이유

논문 주제를 정하다가 내가 평소 관심이 있었지만 더 배우고 알고 싶은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하던 중 도자기가 떠올랐다. 어렸을 때도 도자기를 몇 번 만들어 본적이 있었지만 간디학교에 들어와 도예기초 수업을 듣고 도예작업장을 하며 도자기를 직접 만들게 되면서 더 많이 배우고 싶어졌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내가 도자기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걸 깨달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논문 작품으로 만들고 싶었다. 흙으로 물레를 찰 때의 느낌은 부드럽다. 내가 내 맘대로 흙의 모형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도 신기하다.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면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이 잘 표현된다. 나의 감정까지 들어가는 느낌이다. 도자기를 만들 때는 만드는 데에만 집중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되는 느낌이다. 도자기는 도자기만의 매력이 있다.

5. 작품 구상/작품 단계

1) 설문 대자보와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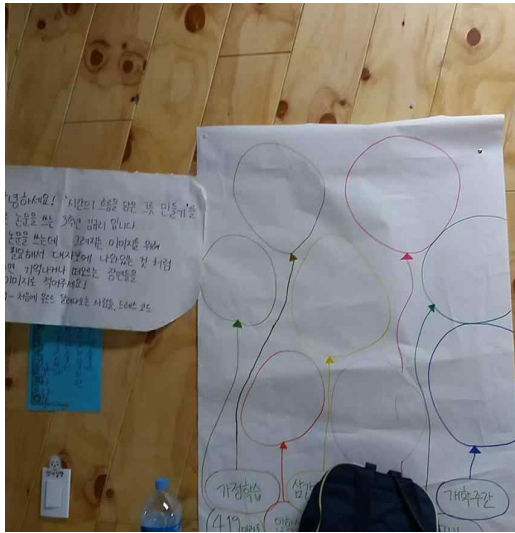
<그림 1> -

대자보를 붙이기 전 골라내고 있는
행사, 일정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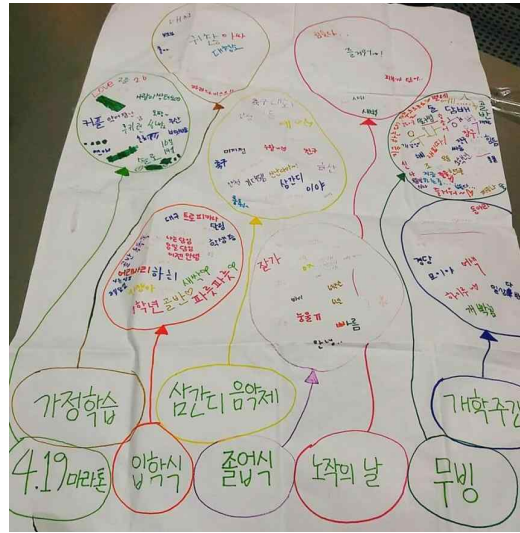
대자보를 붙이기 전에 우리학교의 학사 일정을 보고 월별로 어떤 행사와 일정이 있

는지 적어서 내가 그릇에 그릴 행사, 일정들을 골라냈다. 골라낸 기준은 학교의 대표적인 일정들과 ‘이 행사’ 하면 떠오르는 기억과 추억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 것들로 뽑았다.

- 대자보 붙이기



<그림 3> - 5월 30일 대자보



<그림 2>- 7월 2일 대자보를 뒀다.
(간디인 들이 적어준 의견들)

처음에는 설문지를 돌려 그릇에 참고할 이미지를 찾아내려 하였으나 너무 질문이 많았고 명확한 답을 원하는 듯 답답해보여서 대자보를 통해 가볍고 유쾌하게 키워드를 찾아냈다. 그렇게 해서 학교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봤다. (예-3. 간디 음악제하면 떠오르는 것?)

나온 생각들을 모아서 대자보 통계를 냈다. 가장 사람들이 비슷하게 낸 의견들과 내가 공감이가고 참고할 의견들로 정리를 했다.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주었다.

- 정리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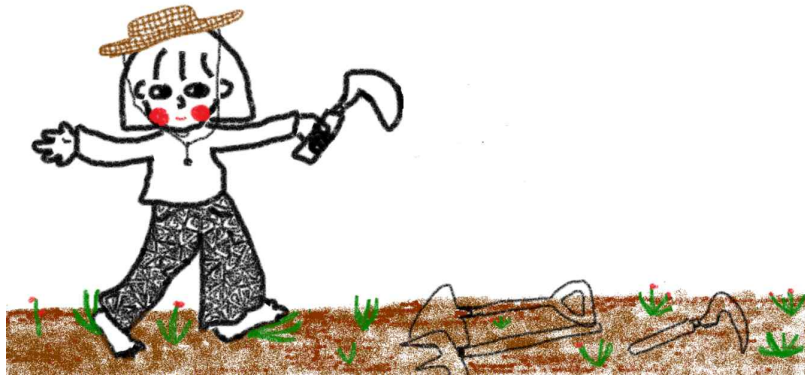
- 무빙하면 생각나는 건?: 짜증나, 재밌다, 스탓회의, 풍물,
- 개학주간: 어색, 개 빠침, 정신없음, 바쁘다
- 노작의 날: 몸빼, 새벽, 더러운 신발, 밀짚모자, 힘들다
- 졸업식: 슬픔, 눈물, 잘가 ,벌써?
- 3간디 음악제: 화합의 장, 공연, 신난다, 친구 사귀자
- 입학식: 파릇파릇, 학생증, 새싹+신생아
- 가정학습: 행복해, 대청소, 짐 보따리
- 4.19마라톤: 커플+사랑, 눈치게임 ,솔로, 봄 ,16일,19일

여기 나온 아이디어 몇 개를 참고하여 스케치를 시작했다.

- 스케치(도안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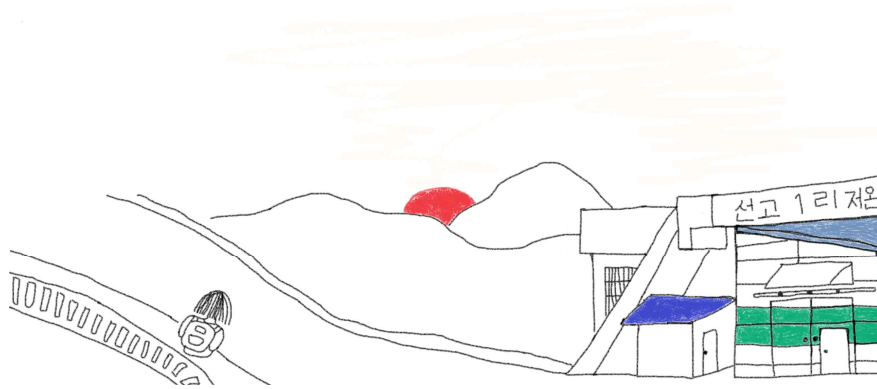
7월 4일부터 작품에 들어갈 그림스케치를 시작했다. 처음엔 1차로 스케치북에 도안을 그리고 완벽함을 위해 2차로 그림판에 그리려고 했으나 처음부터 그림판에 그리기 시작해서 스케치북으로는 몇 개만 스케치했다. 그림판은 작품에 넣을 그림들 13개를 빼고 도안이 총 31개 정도가 나왔다. 도안을 그림판으로 그린 이유는 처음에 재미로 논문 스케치와 상관없이 그림판으로 그림을 그리고 놀다가 그림판에 도안을 그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논문까지 쪽 가지고 오게 되었다. 도안이 너무 많아서 작품에 넣은 13개의 그림은 빼고 나머지 도안 31개 중 4개만 설명하겠다.

- 그림판으로 그린 그림



〈그림 4〉 - 노작의 날

이 도안은 그림판으로 도안을 그리기 시작 했을 때 초반에 그렸던 그림이다. 내가 아침에 노작을 하고 있던 모습을 표현했다. 몸빼 바지는 내가 노작할 때 자주 입는 바지라서 그림에 그린 것이고 농기구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농기구들을 그렸다. 일할 때 몸빼 바지를 입고 일하면 편하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노작을 하면 엄청 춥다. 나는 밀짚모자를 쓰고 일한적은 없다. 캡 모자를 쓰고 일하는 걸 그리려고 했으나 그리 는 게 어려워서 그리지 못했다.



<그림 5> - 내 일상

기숙사를 올라갈 때 저온 창고 쪽 다리를 지나다 보면 노을 지는 게 보일 때가 있다. 올라가다가 혼자 다리에 앉아 노을이 지고 있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다. 해가 지는 걸 보면서 나의 하루를 정리하는 날도 있었다. 기숙사 올라가는 길은 힘들지만 풍경은 정말 예쁘다.



<그림 6> - 내 방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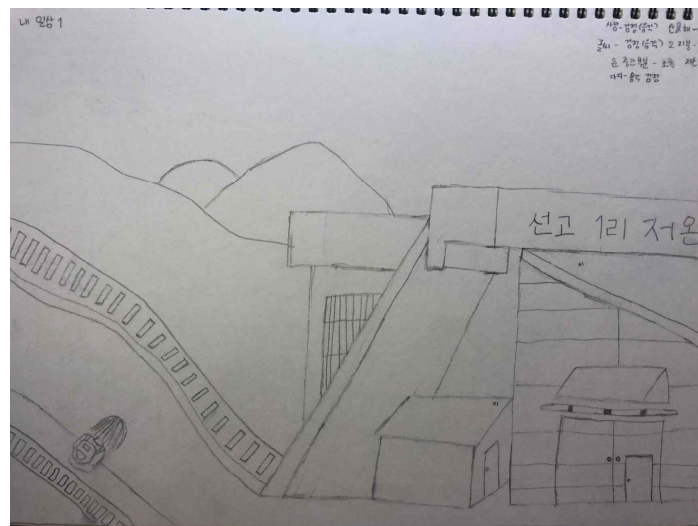
여름 방학 때는 너무 더워서 매일 1일 1빙수를 했다. 내가 자주 가는 빵집이 있는데 그 빵집은 빙수 가격도 싸고 진짜 맛있다. 매일 먹을 수밖에 없는 맛이다. 더워서 먹은 것도 있지만 맛있어서 계속 먹은 것도 있다. 내년 여름에도 매일 먹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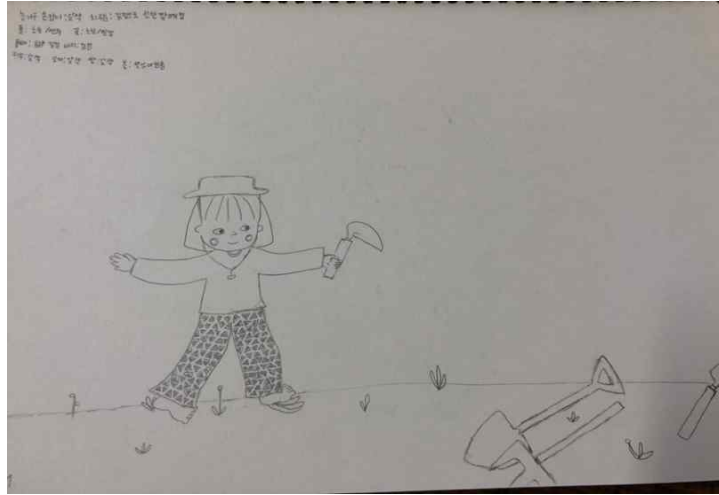
〈그림 7〉 - 입학식

이번 입학식을 했을 때의 모습을 그렸다. 이번 년도 입학식의 컨셉이었던 해리포터를 모자를 쓰고 있는 신입생들과 멘토 반 사람들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번 입학식은 되게 성공한 것 같다. 컨셉도 좋았고 신입생들이 쓰는 모자와 해리포터에 나오는 것처럼 멘토 반을 지정해주는 것도 재밌었다. 19학번 입학식도 기대가 된다. 내가 봐왔던 입학식 중엔 이번 년도 입학식이 제일 기억에 남아서 그리게 되었다.

- 스케치북으로 그린 그림(무슨 색으로 칠할 건지 구상도 했다.)



〈그림 8〉- 내 일상



〈그림 9〉- 노작의 날

이런 식으로 스케치북에는 8개정도 스케치를 했고 그림판으로는 꾸준히 계속 그렸다.

2) 성형 및 그리기

(1) 물레 성형 방법

7월31일 봄 언니네 부모님의 집에 가서 8월3일까지 물레로 그릇을 만들었다. 봄 언니네 작업실에 가기 전까지는 물레로 그릇을 만들 수는 있었지만 중심도 잘 안 잡히고 만드는 방법이 잘못 돼서 그릇하나를 만드는데도 힘들었다. 그런데 물레 차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나니 만드는 게 좀 더 쉬워졌고 힘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작품들은 밥그릇과 컵으로만 구성했는데 그렇게 만든 이유는 반찬그릇, 밥그릇, 국그릇, 컵이 내가 잘 만들 수 있는 종류였고 더 큰 그릇이나 병 등등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은 내가 아직 만들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우리 실생활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반찬그릇, 밥그릇, 컵/차잔으로 만들었다.

알아야 할 점

- 물레를 칠 때는 흙에 물기가 없어서 손과 마찰이 생겨 중간에 흙이 튕겨 나갈 수가 있으니 물은 중간 중간에 계속 묻혀줘야 한다. (기물 안에도)



〈그림 10〉-흙을 넣는 구멍



〈그림 11〉-흙이 나오고 있는 사진.

만들기 전 토련기(흙 뽑는 기계)로 흙을 뽑았다. 처음에 뽑는 흙은 몇 번 더 토련기에 넣고 흙을 잘 섞어야 물레로 성형을 할 때도 기물이 잘 만들어진다.

물레에도 손물레, 발물레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 전기 물레를 사용했다. 전기 물레는 전기로 물레 회전판을 돌리는 장치로서 하단부에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무단 변속의 발판이 부착되어있다. 물레를 완전히 익힐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한 두 달 정도이다.



〈그림 12〉-물레 전원 부분

① 물레의 전원을 켜다.

물레의 회전 방향을 바꾸는 스위치가 있는데 원판의 회전 방향은 시계방향인 편리

하나 반대방향으로 돌려도 상관없다.



〈그림 13〉- 물레의 중앙에 흙을 고정한 사진

② 물레 원판 중앙에 흙을 가로로 고정시킨다.

보통은 흙을 세워서 세로로 물레를 차는데 흙이 잘 안 섞여서 안에 있는 공기가 다 안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도자기를 굽다가 터질 수도 있기에 가로로 만들었다.



〈그림 14〉-고정한 흙을 언덕모양으로 만드는 사진



〈그림 15〉- 언덕모양이 된 흙

③ 고정한 흙을 언덕모양으로 쳐준다.

물레 원판에 고정함과 동시에 물레를 쉽게 차기위해 언덕모양으로 만드는 것이다. 물을 흙 전체에 적당히 묻히고 시작한다.

④ 반복

기물(그릇)은 흙의 중심이 잘 잡힌 뒤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심이 잡힐 때 까지 흙을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한다. 여기서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나 같은 경우, 손목으로만 힘을 너무 세게 주다보니 손에 몇 번씩 마비가 왔었다. 손목에 무리가 덜 가게 하려면 몸에 팔을 붙여서 같이 힘을 실어 물레를 차야 한다. 올렸다가 내릴 때는 오른손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밀면서 왼손으로는 반대 부분을 끌어올려준다.



<그림 16>-흙을 올리고 있는 사진



<그림 17>-올리고 있는 사진



<그림 18>- 내리는 사진

⑤ 중앙 눌러주기

흙이 어느 정도 중심이 잡히면 두 엄지손가락으로 중앙을 깊게 눌러준다.

⑥ 흙 끌어올리기

눌러준 상태에서 왼손으로 기물 밑 부분을 받쳐주고 오른손으로 기물 안쪽에서부터 흙을 끌어올려준다. 기물 안쪽 바닥에 손이 닿지 않을 때 까지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한다. 오른손 엄지는 밖에서 끌어올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기물 안에 넣고 엄지와 같이 끌어올려준다. 왼손은 기물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지지대 역할을 해준다.



〈그림 19〉-중앙을 눌러주는 사진



〈그림 20〉- 흙을 끌어 올리고 있는 사진



〈그림 21〉- 그릇의 모양을 잡는 사진



〈그림 22〉-그릇의 모양을 잡는 사진

⑦ 그릇 모양 잡기

기물 안쪽에 더 이상 손이 닿지 않을 정도가 되면 왼손끼리 손가락을 붙여서 기물 옆에 비스듬히 갖다 댄다. 오른손은 왼손의 엄지와 붙이고 기물 안쪽에서 왼손의 각도를 따라간다. 여기서 왼손은 기물의 모양 잡는 역할을 해준다. 왼손이 기물에 댄 각도에 따라 그릇 모양도 달라진다.



〈그림 23〉-기물을 자르는 사진

⑧ 기물 자르기

그릇의 모양으로 완성되면 물레를 아주 약하게 돌리면서 자를 곳에 나무칼로 비스듬히 깊숙하게 선을 긋는다. 그 다음 선을 그었던 곳에 얇은 실 같은 줄을 짧게 감아서 기물을 자른다. 물레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줄을 짧게 잡아서 기물에 대기만 하면 한 바퀴 돌면서 저절로 잘리게 된다.

기물을 그림23처럼 자르고 나면 두 손을 브이자로 해서 기물을 두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살짝 비틀어서 들어올린다.



〈그림 24〉-성형 한 그릇들을 말리고 있는 사진



〈그림 25〉-뒤집은 사진

다 만든 그릇들은 하루정도 나무판에 말리고 웬만큼 마르면 골고루 말리기 위해 뒤

집어서 말려둔다. 굽깎기 적당한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마르지 말라고 아이스박스에 넣어둔다. 이렇게 해서 만든 그릇들은 총 34개다.

⑨ 물레 성형에 쓰이는 도구들



〈그림 26〉-도구들 사진

- 나무칼: 물레로 기물을 다 차면 줄로 쉽게 자를 수 있게 먼저 겉에만 살짝 잘라주는 역할을 한다.
- 스펀지: 기물 안에 있는 물을 빼주는 역할을 한다. 기물을 만들면서 마찰이 생기지 말라고 물을 발라주는데 이 물이 기물 안에 너무 많다보면 나중에 기물이 흐물흐물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나중에 스펀지로 기물 안에 고여 있는 물을 흡수 시켜준다.
- 얇은 실/줄: 기물을 자를 때 필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도구 같다. 낚시 줄도 상관없다.
- 굽는 도구: 물레를 찰 때 기물을 만들어낼 흙 말고 겉에 있는 물레 찰 때 불편한 흙들을 중간 중간에 정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릇을 다 만들고 나서 물레를 청소해야 할 때 굽는 도구로도 사용된다.

⑩ 굽깎기⁶⁾

굽은 그릇의 밑 부분을 얘기하는데 굽깎기는 성형 시 굽 부분에 붙은 여분의 점토를 깨끗하게 제거하면서 원하는 모양의 굽을 만들어 주는 작업이다. 굽깎기는 한번 해보긴 했었는데 깎는 방법이 손으로 깎는 방법이었고 방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기

6) '물레 성형기법'신미영.(2004)149p발췌한 걸 내 말로 정리해서 씀(2018.10.14.)

때문에 깎다가 힘 조절을 잘 못해서 금이 갔다. 이번에는 물레로 한번 굽을 깎아봤는데 이것도 깎다가 구멍이 났다. 봄 언니 아버지는 굽도 연습을 두 달 정도해야 할 수 있다고 하셨다. 굽은 내가 깎고 싶었으나 계속 깎다가는 모든 그릇에 다 구멍을 낼 것 같아서 봄 언니 아버지가 도와주셨다. 굽이 완벽하게 깎이면 ㄴ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 유약을 바르고 굽게 되면 유약이 녹으면서 그릇에 붙게 되는데 가마에 넣고 구우면 밑 부분은 유약이 안 붙게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딱딱해지기 때문에 굽을 깎을 때 ㄴ이렇게 깎으면 좋다.(대부분이 이렇게 깎는다. 나도 이 방법을 사용했다.)

- 굽 깎는 방법



<그림 27>-흙으로 그릇을 고정시킨 사진

- [1] 굽을 깎기 전 물레에서 흔들리지 않고 잘 깎을 수 있도록 그릇을 흙으로 고정시켜준다.
- [2] 그릇 중앙을 왼손검지로 눌러주고 오른 손으로는 굽 깎는 칼(굽칼)을 가까이 잡고 굽의 바닥 부분을 천천히 깎아준다. 깎을 때는 왼손 엄지를 오른손 엄지에 붙여서 깎아준다. 오른손 엄지가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 [3] 중심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깎아가면서 굽의 두께를 정한다. 이 때 조금씩 깎아줘야 한다.
- [4] 기물의 옆면을 깎아준다. 이것 계속 반복하면서 깎아주고 그릇의 굽이 얇아졌는지 두드려서 두께를 확인한다.



<그림 28>-굽 깎는 사진1



<그림 29>-중앙의 옆을 깎는 사진



<그림 30>-기물의 옆면을 깎는 사진1



<그림 31>-기물의 옆면을 깎는 사진2



〈그림 32〉-잘 깎인 굵들



〈그림 33〉-실패한 굵

원래는 그림32처럼 굵이 잘 깎여야 하는데 내가 했을 때는 그림33처럼 하다가 그릇의 밑을 너무 깎아서 구멍이 났다. 다 깎은 굵들은 뒤집어 두고 집에 갔다.

(1) 도자기에 그림을 그릴 때 사용되는 기법

① 음각⁷⁾

도자기를 성형한 후 반 건조되었을 때 조각도구로 넣고자 하는 문양을 파는 작업으로, 음각 부분은 깊이와 넓이가 일정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이 선명하고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음각 후에는 보통 투명 유약을 입히는데, 음각된 홈 부분에는 유약의 두께가 두꺼워 같은 색의 투명 유약이라도 짙고 푸르게 나타나 자연히 음각선이 잘 표현된다.

② 양각⁸⁾

음각 기법을 발전시킨 기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주 문양에 입체감을 주어 도드라져보이게 하는 조각 기법이다. 꽃문양의 경우 앞쪽 꽃잎과 뒤쪽 꽃잎의 조각을 원근감을 살려 조각함으로써 입체감을 나타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원근의 느낌이 있는 회화적 분위기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음각에 비하여 정성과 시간이 많이 들며, 조각 도구를 사용하는 솜씨가 미숙할 때는 오히려 조잡스럽고 무엇을 그렸는지 분간하

7)'도자공예개론'이진성,노덕주,이지연,정재진,이용석,(2008)105p발췌해서내말로 정리해서 씬(2018.10.15.)

8)'도자공예개론'이진성,노덕주,이지연,정재진,이용석,(2008)105p내말로 정리해서 발췌(2018.1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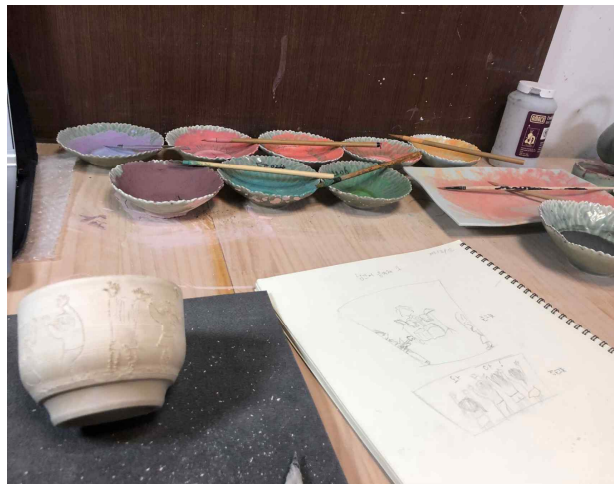
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연습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상감기법⁹⁾

상감이란 고려시대에 고려인 스스로 착안해낸 기법으로, 이미 천여 년 전부터 활용되어오는 방법이다. 방법은 도자기면의 음각으로 파인 부분에 슬립(흙물)상태로 된 상감을 붓으로 발라 채워 넣는다. 그 후에 건조가 진행되고 다듬기 칼로 긁어내보면 음각부분에 들어간 상감은 그대로 남겨져있고 겉면에 발랐던 상감토만 제거된다. 상감은 소지(점력이 있는 흙)와 점도가 같아야하고 소성(가마에서 도자기를 구워내는 과정)에서 수축율과 건조 수축률이 같아야 한다. 또한 점력이 높아야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상감 기법으로 표현했다. 내가 한 방법은 위에 나와 있는 상감기법과 조금 다른데 그릇에 그림이 제대로 표현이 되려면 색을 내야해서 슬립상태로 된 상감 대신 도자기에 그림을 그릴 때 많이 사용되는 안료로 음각된 부분에 채워 넣었다. 안료가 좀 마르면 다듬기 칼로 긁어낸다. 그러면 음각으로 파인 부분에만 안료가 남아있게 된다. 모든 그릇의 그림들을 상감기법으로 그려냈다.

• 상감 방법



〈그림 34〉-음각한 그릇

- [1] 뾰족한 도구로 그릇에 음각을 한다.
- [2] 음각한 그릇에 안료를 채워 넣고 다듬기 칼로 긁어낸다. (안료는 물과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말려야 되서 음각한 부분에 채워 넣고 몇 분 정도 말린 다음 긁어낸다.)

9) '도자공예개론' 이진성, 노덕주, 이지연, 정재진, 이용석(2008) 107p 내말로 정리해서 발췌(2018.10.15.)



〈그림 35〉-긁어내는 사진



〈그림 36〉-상감한 사진1



〈그림 37〉-상감한 사진2

• 상감 기법에 사용되는 도구

- ① 둥근 칼: 컵이나 그릇 안쪽을 상감할 때 유용하다. 뾰족한 칼은 그릇이 원형으로 되어있어 안쪽을 긁어내기가 어렵고 표현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지워지는데 둥근칼은 칼이 휘어있어서 안쪽을 상감하기가 편하다.
- ② 다듬기 칼: 상감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 ③ 큰 붓: 음각을 하면 그릇에서 가루가 떨어져 나온다. 그 가루를 털어내는 역할을 한다.
- ④ 뾰족한 젓가락: 음각을 하는 데에 쓰인다. 사실 젓가락이 아니어도 다른 뾰족한 도구로 음각을 할 수 있다. 젓가락은 뾰족하게 갈아서 음각하는 도구로 만든 것이다.



〈그림 38〉-도구들

- 도자기에 색을 칠하는 재료

도자기에 색을 칠하는 재료들은 여러 종류가 있다. 다른 재료들도 많지만 그릇에 색을 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재료 세 가지를 적어봤다.

- ① 세라믹 물감¹⁰⁾

1250도에서 견딜 수 있게 만들어진 도예 용품으로 도재상 에서 살 수 있다. 물을 조금씩 섞어가며 그릴 수 있다.초벌을 한 도자기에 사용한다.

- ② 세라믹 크레용¹¹⁾

1250도에서 견딜 수 있게 만들어진 도예용품으로 도재상 에서 살 수 있다. 쓰임은 보통 크레용처럼 글자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초벌을 한 도자기에 사용한다.

- ③ 세라믹 안료¹²⁾

색깔 재료 중에 가장 유용하게 쓰인다. 흙에 섞기도 하고 유약에도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물과 섞어서 물감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나는 위 세 가지 중 안료를 사용했다. 안료를 물감과 같이 섞어서 사용했는데 안료를 사용한 이유는 지금까지 안료만 사용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료들보다 사용법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이 재료로 사용하게 되었다.

- 그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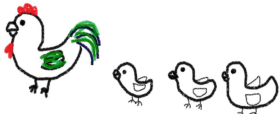
8월 8일부터 봄 언니네 부모님 작업실에 다시 와서 물레찬 그릇에 그림 그리는 작업을 시작했다. 괜찮은 그릇들을 13개 고르고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려놓은 도안들을 어떤 그릇에 그릴지, 어떻게 입체적으로 만들지, 구상을 했다. 이렇게 해서 8월 10일

10)'처음 만드는 도자기'홍지은,문은진,(2012)13p발췌
 11)'처음 만드는 도자기'홍지은,문은진,(2012)13p발췌
 12)'처음 만드는 도자기'홍지은,문은진(2012)13p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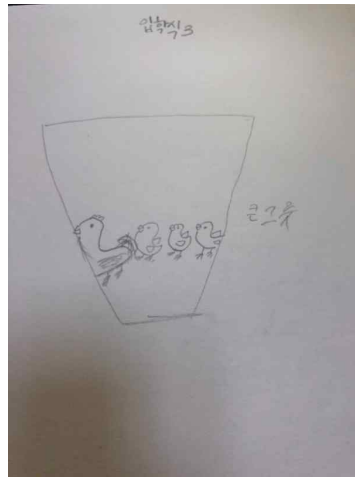
에 작업을 마쳤다.

① 도안과 작품 설명

나의 작품은 학교에서의 대표적인 일정/행사를 표현한 그릇 여덟 점, 내 방학을 주제로 한 그릇 두 점 나의 학교 일상을 주제로 한 그릇 두 점 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추가로 내가 '나'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그릇에 그려냈다. 추가로 하나를 더 만들어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보여주고 싶었다. 1,2월과 7,8월은 방학이라 작품에서 뺐다. 이렇게 해서 내 작품은 총 13점이다.



<그림 39>-그림판 도안



<그림 40>-어떤 그릇에 어떻게 그릴지 구상한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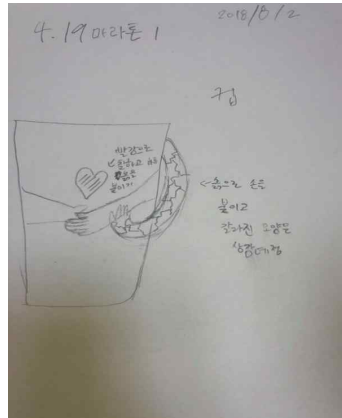
<그림 41>-초벌 전 상감한 그릇

• 작품 설명: 입학식(3월)

닭은 선배들을 표현한 것이고 병아리는 신입생들을 표현한 것이다. 언니 오빠들이 앞에서 이끌어 주고 있는 것과 뒤에서 신입생들이 따라 오고 있는 것을 그렸다. 입학식하면 뭐가 떠오르는 지에 관해 설문 대자보를 붙였을 때 누군가 '병아리'라는 키워드를 적었고 그 아이디어를 참고해서 그리게 되었다. 사실 입학식이라는 그릇에 닭과 병아리가 왜 그렸는지 의문인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 입학식하면 신입생이 떠오르고 신입생 때의 내 모습이 마치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며 그렸다.



<그림 42>-그림판 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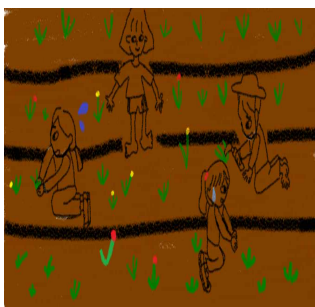
<그림 43>-어떤 그릇에 어떻게 그릴지 구상한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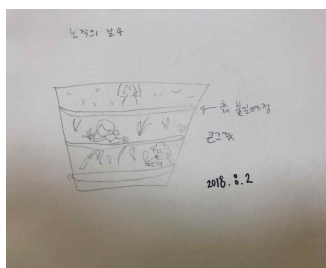
<그림 44>-초벌 전 상감한 그릇

• 작품 설명: 4.19마라톤(4월)

이 컵은 이미 마라톤 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친구가 이 둘 중 한명에게 마라톤 신청을 했다가 성사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를 표현했다.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갈라진 손으로 표현한 컵이다. 처음엔 갈라진 손을 컵에 그리려고 했다. 그러다가 좀 더 재미있고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갈라진 손을 컵 손잡이로 만들었다. 처음엔 학교 게시판에 설문 대자보를 붙여 4.19마라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아이디어를 구해봤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로, 붐, 커플과 같은 이야기를 적어 주었다. 우리학교 사람들 대부분은 4.19 마라톤을 생각하면 4.19 혁명에 중점을 두기보단 짝을 누구와 할 지가 제일 관심사인 것 같다. 그래서 4.19 마라톤을 어떻게 그림에 표현할 지 고민하다가 짝에 관련된 그림을 그렸다. 어떻게 보면 슬프게 보일 수도 있겠다.



<그림 45>-그림판 도안



<그림 46>-어떤 그릇에 어떻게 그릴지 구상한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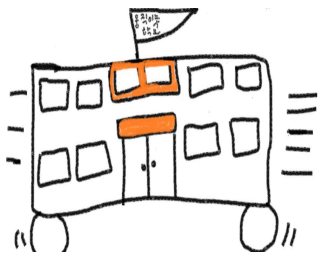
<그림 47>-초벌 전 상감한 그릇

• 작품 설명: 노작의 날(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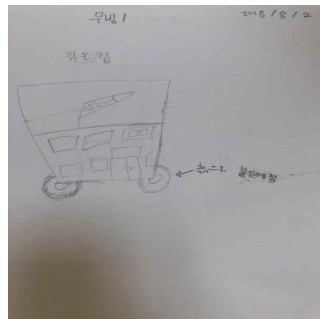
학생들이 학교에서 노작을 하는 모습을 컵에 담았다. 우리학교 노작은 할 때 마다 힘들고 귀찮지만 그만큼 내 머릿속에 남는 기억이라 컵에 넣게 되었다. 컵엔 사람들

이 노작할 때 쓰는 농기구와 잡초를 뽑느라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쉬는 시간에 땅에 앉아 주먹밥과 매실 음료를 먹는 사람들을 표현했다. 울퉁불퉁 튀어나온 부분은 고랑과 이랑을 표현하기 위해 물레로 굽을 깎듯이 살짝 깎아냈다(이 부분은 내 작업을 도와주셨던 봄 언니 아버지께서 도와주셨다). 이 두 개의 컵은 처음에 한 개 만들면 깨질 것 같아서 같은 작품으로 두 개를 만들었는데 모두 잘 나와서 다 작품에 올리기로 했다. 우리학교 노작은 너무 힘들다. 평생 끝나지 않을 것만 같다. 잡초도 분명 다 뽑았는데 계속 자라고, 자라고 또 자란다. 그렇지만 노작 중간에 먹는 엄청 큰 주먹밥과 시원한 매실 음료는 정말 맛있다. 그런 게 기억에 남아서 음료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을 넣었다. 노작은 무척 힘들지만 잡초가 없는 밭을 보면 뭔가 뿌듯하다.

구상하면서 바뀐 점 - 그림46에는 텃밭 고랑을 흙으로 표현할 예정이라고 적혀있는데 만들 때는 흙 대신 물레에서 굽 깎는 방법과 동일하게 살짝 깎아서 고랑을 표현했다.



<그림 48>-그림판 도안



<그림 49>-어떤 그릇에 어떻게 그릴지 구상한 그림



<그림 50>- 초벌 전 상감한 그릇

• 작품 설명: 무빙/움직이는 학교(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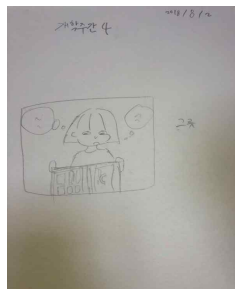
무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몰라서 아이디어를 찾다가 움직이는 학교이니까 학교가 움직이는 것을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게 되었다. 그냥 딱 봐서는 학교인지 모를 것 같아서 그릇의 안쪽에는 움직이는 학교라는 글을 새겼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릇 밑에는 바퀴를 달았다. 사실 우리학교 무빙의 내용과는 상관도 없는 그림이지만 1, 2, 3, 4, 5학년이 모두 알아볼 수 있게 무빙을 표현하는 그림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나온 작품이다. 내가 했던 무빙들은 모두 다 재미있었다. 1학년 무빙은 친구들과 아무도 없는 학교에 있으니까 뭔가 자유로워진 느낌이었다. 그냥 우리끼리만 있다는 사실에 너무 즐거웠던 것 같다. 2학년 무빙

은 우리 반이 함께 무언가에 열심히 집중하며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계기였다. 무빙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좋았다. 이번 3학년 무빙은 거의 역사무빙이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깊이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다.

구상 하면서 바뀐 점 - 그림49, 50을 그릴 때 깃발을 밖에다가 그렸는데 안쪽에다가 그리면 보는 각도마다 그릇이 달라지고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까 깃발을 안쪽에다가 새겼다.



〈그림 51〉- 그림판 도안



〈그림 52〉-어떤 그릇에 어떻게 그릴지 구상한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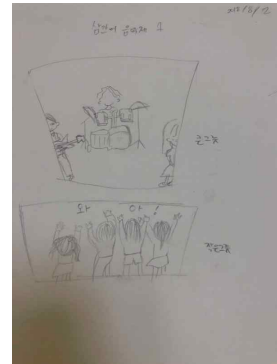
〈그림 53〉-초벌 전 상감한 그릇

- 작품 설명: 개학주간(9월)

개학주간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생각했다. 내가 기숙사에서 자려는데 적응이 안 되서 잠이 오지 않았던 모습, 개학 주간이 되어서 머릿속이 정신없는 모습 등등 여러 가지를 그려보았다. 그 중에서도 내가 제일 마음이 갔던 그림은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 다음 방학이 언제인지 상상하며 짐을 푸는 나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었다. 그래서 그릇엔 기숙사에서 우울한 기분으로 짐을 푸는 내 모습을 담았다. 사람들이 내가 표현한 개학주간이 학교의 공식 행사나 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개학주간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 말고도 더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려봤다. 방학이 끝난 후 개학주간은 너무 정신이 없다. 집에서 가져온 내 짐은 또 다시 풀어야 한다. 너무 귀찮다. 나는 학교에 적응하는 시간이 좀 오랫동안 필요하다. 1~2학년 땐 개학하고 처음에 학교에 오면 '집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거나 다음 방학이 언제인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다녔다. 정말 편하고 따뜻하고 잠도 잘 오고 손만 뻗으면 먹을 것이 있는 집에서 잠도 오지 않고 추운 기숙사에 오면 조금 우울해진다.



〈그림 54〉-그림판 도안



〈그림 55〉-어떤
그릇에 어떻게 그릴지
구상한 그림



〈그림 56〉-초별 전 상감한
그릇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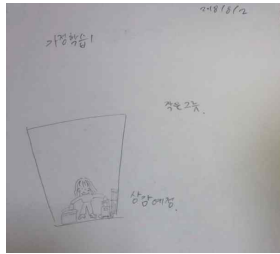
〈그림 57〉-초별 전 상감한
그릇(응원하는 사람들)

- 작품 설명: 3간디 음악제(10월)

나는 3간디 음악제에서 밴드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았다. 모든 공연에서 드럼, 기타, 보컬이 가장 눈에 띄어서 그릇에 담아냈다. 관객들의 옷과 머리색은 설문 대자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화합의 장'이라는 키워드로 사람들이 활발히 어울려 노는 것 같이 보이려고 알록달록한 색으로 칠했다. 그릇을 두 개로 만든 이유는 무대와 객석을 나누기 위해 두 개로 표현한 것도 있지만, 하나로 표현하기에는 내가 그려낸 부분들이 정확히 표현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한 작품을 두 개로 만들었다. 3간디 음악제가 끝나고 나면 옷이 땀으로 다 젖어 있고 너무 소리를 질러서 목이 쉬어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다. 그만큼 나에게서는 뜨겁고 즐거운 기억이었다.



<그림 58>-그림판 도안



<그림 59>-어떤
그릇에 어떻게 그릴지
구상한 그림



<그림 60>-초별 전
상감한 그릇

• 작품 설명: 가정학습(11월)

이 그릇엔 가정학습 당일, 짐이 많아 힘들어 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집에 가기 전에 농구장이나 트럭을 보면 기숙사에서 가지고 내려온 사람들의 짐이 한 가득이다. 고작 일주일 동안 집에 가 있는 건데 왜 방을 바꾸고 대 청소를 하는지도 모르겠다. 가정학습이나 방학이 되면 당일 날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숙사에서 편한 츠리닝이나 축구바지를 입고 내려온다. 아마도 ‘어차피 집에 가니까..’하는 마음으로 꾸미지 않고 내려오는 것 같다(나도 그렇다). 그 부분을 표현하고 싶어서 츠리닝을 입은 것으로 표현했다. 가정학습 때 짐을 들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서 그릇에 담았다.



<그림 61>-그림판 도안



<그림 62>-어떤
그릇에 어떻게
그릴지 구상한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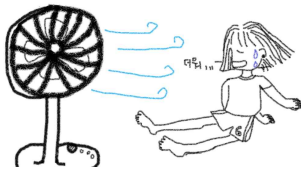


<그림 63>-초별 전 상감한
그릇

• 작품 설명: 졸업식(12월)

이 그릇엔 6학년 언니 오빠들과 재학생들이 졸업식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표현했다. 아직 졸업식을 두 번 밖에 보지 못했지만 다양한 표정으로 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진짜 슬퍼서 오열하다시피 우는 사람, 웃으면서 우는 사람, 그리고 안 울려고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 등등 여러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졸업식은 공연이나 6학년 졸업생들이 앞에 나와서 각자가 6년을 산 이야기를 듣는 건 재미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학교에서는 다시 못 본다는 사실에 웃는 것보다는 우

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았다(눈물 몇 개는 입체감을 더 하기 위해 흙으로 눈물 모양을 만들어 붙였다). 이런 모습들을 그릇에 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 그릇에 담게 되었다.



〈그림 64〉-그림판 도안



〈그림 65〉-어떤 그릇에 어떻게 그릴지 구상한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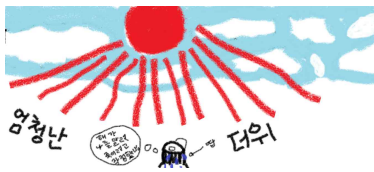


〈그림 66〉-초벌 전 상감한 그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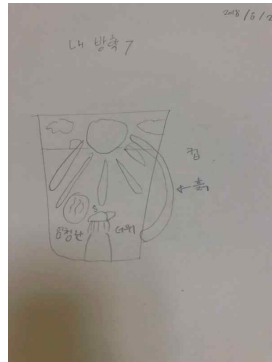
- 작품 설명: 내 방학1

내 방학을 주제로 한 그릇은 달과 상관없이 내가 여름방학 때 어떻게 지냈는지, 얼마나 더웠는지 등을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것들로 표현했다.

이 그릇은 집에서 선풍기를 켜고 있는 내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선풍기 바람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흙으로 바람모양을 만들어 붙였다. 이번에 나의 여름 방학은 정말 너무 더웠다. 집에 있던 에어컨도 고장 나고 선풍기는 한 대밖에 없고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날이 더워 밖에 별로 나간적도 없다. 나중엔 냉풍기(에어컨과 비슷함)를 사긴 했는데 방학의 절반이 넘는 기간 동안 선풍기 한 대로만 살았다. 여름방학 때 있었던 일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날씨가 썩 죽을 만큼 더웠던 것, 집에서 방학의 절반을 선풍기 한 대로만 살았다는 것만 기억이 나서 그릇에 넣었다. 내가 여름방학 때 정말 덥게 지냈다는 걸 표현했다.



〈그림 67〉-그림판 도안



〈그림 68〉-어떤
그릇에 어떻게 그릴지
구상한 그림



〈그림 69〉-초벌 전
상감한 그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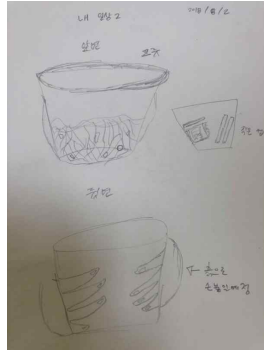
- 작품 설명: 내 방학2

밖에 나갔는데 엄청난 더위가 나를 먹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그릇에 표현했다. 해는 최대한 뜨겁고 덥게 보이려고 진한 빨간색으로 칠했다. 해 주위에 파란색으로 구름을 표현하려고 했으나 색을 잘못 골라서 파란색보다 초록색 같은 색으로 나와 버렸다, 여름방학엔 너무 더워서 해가 모든 사람들을 다 썬 죽이려고 작정한 줄 알았다(그래서 말풍선에도 내가 생각한 말을 넣었다). 밖에 오랫동안 나가있을 수가 없었다. 너무 더워서 거의 매일 저녁때마다 빵집에서 빙수를 한 개씩 포장해 집으로 갔다. 내년 여름 방학은 제발 안 더웠으면 좋겠다(폭염은 피해갔으면). 해의 뜨거움이 아직까지도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 여름 방학 때의 느낌을 그릇에 넣었다.

구상 하면서 바뀐 점 - 그림 68에는 그림을 컵에 그리는 걸로 나와 있는데 물레찬 그릇들을 보니 컵이 모자라기도 했고 그릇에 더 표현하는 게 더 크게 잘 표현될 것 같아서 그릇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해를 컵 손잡이로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되면 손잡이가 너무 얇아서 부러질 것 같아 만들지 않았다. 그림판 도안에는 구름이 그려져 있는데 작품을 만들 때는 구름까지 그리면 딱 차 보이는 답답한 느낌이 들것 같아 하늘만 칠했다.



〈그림 70〉-그림판 도안



〈그림 71〉-어떤 그릇에 어떻게 그릴지 구상한 그림



〈그림 72〉-초벌 전 상감한 그릇

• 작품 설명: 내 일상1

이 그릇은 내가 기숙사에서 컵라면 먹는 것을 표현했다. 손은 내가 들고 있는 것처럼 리얼함을 살리기 위해 손 모양을 만들어서 그릇에 붙였고 컵라면을 평범하게 그려려다가 그릇 안에 컵라면을 그리는 게 훨씬 좋고 재미있어서 그릇 안에 라면을 그렸다. 한 작품을 두 개의 그릇으로 나눈 이유는 한 개의 그릇에 그리면 너무 그릇이 짝차보이고 답답해보였다. 그래서 한 개의 그릇엔 컵라면을 들고 있는 나의 손, 다른 그릇엔 육개장 라면스프와 젓가락을 그렸다. 식당 쌤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작년까지는 저녁을 먹지 않고 올라가서 라면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금은 작년처럼 라면을 엄청 먹진 않지만 기숙사에 일찍올라가 라면을 먹던 기억이 나서 그릇에 그리게 되었다. 라면 중엔 육개장을 가장 많이 먹어서 육개장 라면을 그렸다. 라면은 혼자 먹는 것도 맛있다. 무슨 라면이던지 라면은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림 73〉-그림판 도안



〈그림 74〉-어떤 그릇에 어떻게 그릴지 구상한 그림



〈그림 75〉-초벌 전 상감한 그릇

• 작품 설명: 내 일상2

이 작품은 내가 학교 기숙사에서 내려오는 길에 우산이 뒤집혀 찢절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자세히 보면 글씨로 자그맣게 ‘왜 안 뒤집혀’라고 적혀있다. 우산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알록달록하게 칠했고 자세히 보면 비도 그려져 있다. 기숙사에서 학교로 내려오기 전에 비가 내리면 양말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내려간다. 그래서 신발은 슬리퍼로 그렸다. 비가 많이 오면 내 우산은 작고 힘이 없어서 가방은 물론이고 어깨랑 머리카락이 다 젖는다. 가끔가다가 우산도 뒤집힌다. 얼굴엔 미스트 처럼 비가 막 뿌려진다. 비가 오면 짹짹하고 눅눅해지는 것 같다. 나의 일상들 중에 비 내리는 날 학교를 내려오는 나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아 그리게 되었다.



〈그림 76〉-그림판 도안



〈그림 77〉-어떤
그릇에 어떻게
그릴지 구상한 그림



〈그림 78〉-초벌 전 상감한
그릇

- 작품설명: 나를 표현하는 그릇

우선 나를 표현하는 그릇을 만들게 된 계기는 내가 탐방을 다녀오고 나서다. 탐방을 하다가 도자기를 취미로 하시는 분을 만났다. 그 분은 어떤 한 사람을 계속 관찰하면서 그 사람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등등을 도자기 컵에 그림으로 표현하셨다. 나도 거기서 아이디어가 떠올라 나를 표현하는 그릇을 만들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나, 나만 알고 있는 나를 그릇에 그려보기로 했다. 그릇에 표현한 것처럼 나는 귀가 얇아서 다른 사람들 말에 쉽게 넘어간다. 논문을 쓸 때도 이 점이 아주 힘들었다. 누구의 말을 어디까지 참고를 하고 어디까지 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평소에도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넘어간다. 나의 이런 점이 싫다. 두 번째는 기분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표정에 다 드러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표정을 보고 내 기분이 어떤지 금방 알아낸다. 또 나는 눈치를 많이 본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자기주장이 강하기보단 눈치를 보면서 그 분위기에

맞춰가는 타입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잠이 많다. 수업시간에도 이상하게 잠이 온다. 작년까지 엄청 심했는데 잠에서 깨면 수업에서 했던 내용을 또 물어본다. 나도 내가 학교에서 자는 습관을 고치고 싶다. 다행히도 지금은 잠을 자는 습관이 줄어들었다. 그릇에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줄로 연결해서 표현했다.

구상 하면서 바뀐 점 - 그림76에 '듣는 노래가 거의 다 팝송이다'가 있었는데 이것도 그릇에 넣으려고 했다가 그릇이 작아서 넣진 못했다.

② 입체적인 작품을 만드는 방법

내 작품은 '4.19 마라톤'을 표현한 작품, 무빙을 표현한 작품 등 입체적인 작품들이 꽤 있다. 밑에 나온 방법들로 모형을 만들어서 그릇에 붙였다. 입체적인 작품은 총 5개이며 모형은 하루정도 말린 뒤 붙였다.



〈그림 79〉-판으로
민 흙 사진



〈그림 80〉-그릇에 붙일
모형을 말리는 사진

• 붙이는 방법



〈그림 81〉-스크래치 낸 사진



〈그림 82〉-스크래치
도구



〈그림 83〉-스크래치
낸 사진

[1] 그릇에 스크래치를 내는 도구로 붙일 곳 두 면 모두 스크래치를 낸다.



〈그림84〉-(슬립)흙물



〈그림85〉-흙물을 묻혀 붙여준 사진



〈그림86〉-모형을 붙인 사진

[2] 스크래치를 낸 모형과 그릇을 흙물 (슬립)을 묻혀 붙여준다. 흙물이 접착제 역할을 해준다. 붙인 모형은 나무칼로 밖에 튀어나온 흙물들을 정리해준다.

- 쓰인 도구들



〈그림 87〉-나무칼



〈그림88〉-스크래치도구

나무칼: 뾰족한 부분의 뒷부분(동그란 부분)으로 튀어나온 흙물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스크래치 내는 도구: 그릇과 모형을 합칠 때 좀 더 강하게 붙을 수 있도록 만든다.

6. 유약이란

유약이란 여러 광물질(금이나 석탄 따위)을 조합하여 만든 것이다. 1차 소성(가마에서 도자기를 구워내는 과정)을 한 초벌 도자기에 유약을 입혀서 2차 소성(가마에서 도자기를 구워내는 과정)을 하면 유약이 녹아들면서 표면이 유리질로 된다.¹³⁾

13)'처음 만드는 도자기' 홍지은, 문은진, (2012)10p 발췌

1) 유약 선정

유약은 밝은 청자 유약을 사용했다. 어두운 색 유약을 사용할건지 아니면 밝은 색 유약을 사용할건지 선택 할 수 있었는데 밝은 색 계열이 나올 것 같아서 밝은 청자 유약으로 선택했다. 봄언니 부모님 작업실에서 작업 한 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적었고. 내가 유약에 관한 것들은 지식이 없어서 그림이 잘 표현될 것 같은 것으로 선택했다.



〈그림 89〉-유약 색 선정

위에 보이는 그림이 내가 사용한 유약의 색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나는 밝은 청색 빛이 나는 유약을 사용한 것이다.

2) 유약 사용 방법

유약을 사용 하는 데에도 많은 방법이 있다. 나는 ‘담금법’으로 유약을 씌웠는데 (봄 언니네 부모님에게 시유(그릇에 유약을 씌우는 작업)를 부탁드리고 집에 가서 사진은 찍지 못했다.) 담금법은 그릇을 시유 집게(유약에 그릇을 담글 때 사용되는 집게)로 들어서 유약에 담갔다가 빼내는 작업을 얘기한다. 손으로 시유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릇에 손자국이 남고 골고루 유약이 씌워지지 않기 때문에 시유 집게로 시유를 하는 방법이 편하다.

- 담금법으로 시유하는 방법(그림90, 91은 1학기 작업장 시간에 찍은 사진이다.)



〈그림 90〉-시유 집계로
그릇을 들어올리는 사진



〈그림 91〉-시유된
그릇사진

- [1] 시유 집계로 그릇을 들어서 유약에 담갔다가 들어올린다. 시유된 그릇은 가마에 들어가기 전까지 잘 보관한다.
- [2] 그릇에 그림을 그려도 유약을 씻었을 때는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로 구울 때 유약이 녹으면서 그림이 나타난다.

7. 초벌 방법

초벌이란 도자기를 구울 때 첫 번째로 굽는다는 걸 뜻한다. 도자기를 굽는 순서는 초벌, 두 번째로 굽는 재벌, 그리고 장식을 위해 수금(도자기에 금빛 글씨나 그림을 넣는데 쓰이는 물감) 등을 재벌보다 낮은 온도로 구워내는 삼벌이 있다. 보통은 초벌과 재벌만 한다. 나도 재벌 까지 했다. 초벌은 보통 800도~900도로 구워낸다. 내 작품은 900도로 구웠다. 가마는 가스 가마를 사용했다. 가스 가마 또한 많이 사용되는 가마로 가스레인지처럼 가스불로 온도를 올린다. 불이 직접 닿는 것이기 때문에 가마 내에 온도차이가 생길 수 있다. ¹⁴⁾ 사진을 못 넣은 이유는 봄언니 부모님 작업실은 도자기를 굽는 날짜가 정해져있었다. 도자기를 굽는 날짜가 개학에 가까워진 날이어서 내가 몇 일 동안 계속 봄언니 집에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유약시유, 초벌과 재벌은 부탁드리고 집에 왔다.

8. 재벌 방법

재벌은 두 번째로 굽는다는 걸 뜻한다. 재벌은 보통 1250°C~1260°C이다. 내 작품은 1280°C로 구웠다. 굽는 데에는 21시간이 걸렸다. 재벌을 하면 그릇에 묻어있던 유약이 완전히 녹게 된다. 재벌을 마치면 원래 그릇의 크기보다 20% 정도 줄어든다.

14) '처음 만드는 도자기' 홍지은, 문은진, (2012)11p 내말로 정리해서 발췌(2018.10.17)

이렇게 해서 9월 2일 완성된 작품이 학교로 왔다.

- 완성된 작품들



<그림 92>-완성된
입학식그릇



<그림 93>-완성된
4.19마라톤 컵1



<그림 94>-완성된
4.19마라톤 컵2



<그림 95>-완성된
노작의 날 찻잔



<그림 96>-완성된
무빙그릇



<그림 97>-완성된
개학주간 그릇



<그림 98>-완성된 3간디음악제
그릇



<그림 99>-완성된
가정학습그릇



<그림 100>-완성된 졸업식
그릇



<그림 101>-완성된
내 방학1그릇



<그림 102>완성된 내
방학1그릇



<그림 103>-완성된 내 방학2
그릇



<그림 104>-완성된
내 일상1그릇



〈그림 105〉-완성된 나를 표현하는 그릇



〈그림 106〉-완성된 나를 표현하는 그릇

III.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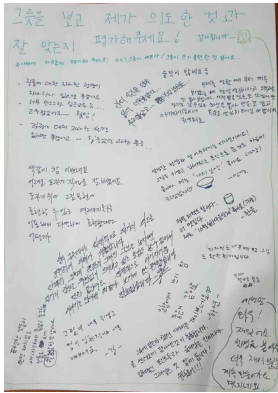
1. 연구의 성과와 한계

우선 나는 사람들이 제천 간디학교에서 각자의 일상을 떠올리면서 추억을 되새겨보거나 나의 작품에 공감하는 것이 논문의 목적이었는데 사람들이 내 작품을 보고 ‘우리학교의 시간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릇에 담고자했던 이야기들을 잘 담아낸 것 같아서 좋다’ 등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해줬다. 이런 점에선 내가 사람들의 공감을 잘 이끌어낸 것 같아 나 스스로 뿌듯하게 느껴졌다. 이렇게까지 내 작품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지 몰랐다. 그리고 원래 논문을 쓰기 전에는 도자기에 대해 관심만 있었다. 도자기는 무슨 종류가 있는지, 몇 도로 만들어지는지 등 관련 지식이 별로 없었는데 논문을 쓰게 되면서 많은 지식을 쌓게 된 것 같다. 아쉬운 점은 내가 더 다양한 종류로 그릇이나 컵에 얽매이지 않고 도자기를 만드는 것도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나 자신이 대견하고 뿌듯하다. 논문을 쓰면서 많이 발전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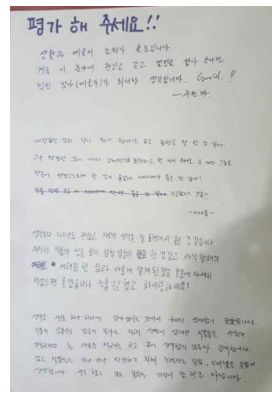
2. 작품 평가

1) 간디인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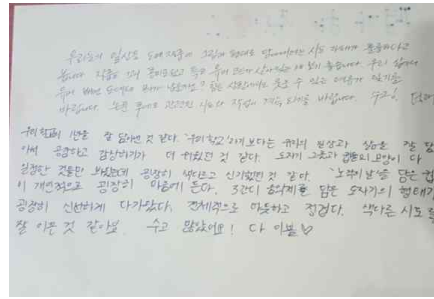
10월6일 작품 평가회를 했다. 학부모, 학생, 선생님이 많은 평가를 해주셨다. 평가는 총 21개를 받았다.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써주셨다.



〈그림 107〉-평가 종이1



〈그림 108〉-평가 종이2



〈그림 109〉-평가 종이3

평가 내용: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하나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만드느라 힘들었을 듯... 고생 많았어요 핫팅! 과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 있으면 좋겠어요. 힘들었던 과정 등등../색감이 참 이쁘네요. 어려운 도자기 작업을 잘 하셨어요. 도자기 위에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표현했다면 어떨까/주제를 정할 때부터 계속 봐왔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적받을 점도 있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뽑아 만든 것 같고 본문도 열심히 쓰시길 바랍니다./생각을 작품 하나하나에 담아냈다는 것에서 구리의 섬세함이 보였습니다. 작품의 실용성은 낮을지 몰라도 학교의 생활이 담겨진 작품들을 만들며 익숙하지만 늘 새로운 학교라는 곳을 깊이 생각했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많은 작품들을 하나하나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인내했을 모습이 생생합니다. 수고했고 남은 본문도 마무리 잘 하길 바랍니다./우리들의 일상을 도예작품에 그림과 형태로 담아내려는 시도 자체가 훌륭하다고 봅니다. 작품도 꽤 흥미로웠고 특히 유머코드가 살아있는 게 보기 좋습니다. 우리 삶에서 유머 빼면 도대체 뭐가 남을까요? 힘든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논문 후에도 관련된 시도와 작업이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내가 가장 기억에 남은 나한테 와 닿는 평가들로 적어봤다.

2) 전문가 평가

전문가 평가는 충남대학교 도예과 선생님인 임미강님과 2018년 1학기에 도예작업장 선생님을 맡으셨던 안주현님께 받았다. 간단하게 내 주제와 그릇의 구성을 말씀드리고 작품 설명과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드렸다.

[임미강 선생님] 학생의 작업을 입체 작업이므로 우선 형태를 결정하고 표면 장식에 대한 연구가 따라야 된다고 본다. 사진 자료에서 회화적인 표현이 작품의 주요부분이라고 느껴진바 제작된 그릇이 충분한 크기가 아니라고 느껴진다. 그릇의 형태도 조금 더 통일성이 있게 제작되었으면 주제에 대한 감상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본다. 주제는 너무 많은 것을 잡는 것보다 한 가지로 통일해서 주제 의식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학생 작품의 주된 주제가 학교 일정이 라면 주요 행사를 계절별 또는 월별로 나누어서 형태와 크기를 대략적으로 정한 다음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본다.

학생의 작품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노작의 날’이다. 논두렁을 표현한 점과 긴 고랑을 층층히 표현해서 연속적인 느낌을 주어 공간감을 준 점이 돋보인다. 13개의 작업 중 입체적인 표현 양식을 보여준 작업들도(졸업식, 무빙, 4.19마라톤, 내 방학, 내 일상, 나를 표현하는 그릇)조형적 고민을 통해 창의적인 작품을 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안주현 선생님] 일 년의 학교 일정과 철학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작품 하나 하나에 잘 담아내고 표현한 것 같아 재미있고 신선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특히 지난하고 어려운 힘든 물레 작업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몰입과 집중의 시간들이 느껴진다. 논문을 준비하며 보낸 시간이 그 누구도 아닌 규리 자신에게 성장의 자양분으로 스며들었길 바란다.

일단 전문가 평가를 두 분 다 길게 써주셔서 놀랐다. 내가 이 평가로 그릇을 수정하거나 다시 만들 수는 없지만 모두 의미 있는 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충남대학교 교수님 말씀대로 다음에 작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그릇과 주제가 아닌 통일된 모양과 주제로 그릇을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다하는 생각이 들었다. 안주현 선생님의 평가는 굉장히 나에게 힘이 되었다. 다음에 작품을 만들게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 나의 평가

내가 그릇에 작품을 담는 거였는데 처음엔 그릇을 만들겠다는 부분에만 너무 얽매여있어서 다른 모양과 종류를 자유롭게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사람들이 한 말들 중에 ‘실용성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실용성이 낮은 면은 없잖아 있는 것 같다. 입체적인 작품들은 그릇 바깥 면에 붙여져 있는 모형들이 튀어나와 있으니 실제로 먹을 때는 불편 할 수도 있겠다. 내가 개인적으로 맘에 드는 작품은 내 일상¹이다. 손을 밖에다가 붙인 것도 맘에 들고 처음에 라면을 평범하게 밖에다가 그리려고 했는데 재미를 위해 그릇 안에 넣은 것도 잘 선택한 것 같다. 사람들이 작품 설명회 때 노작의 날 찾잔을 술잔이 아니냐고 그랬는데 모양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었

던 것 같다. 그래도 내 생각엔 모든 작품들이 색이나 그림의 선 같은 게 다 잘 나온 것 같다. 만족스럽다.

3. 논문을 마치며

논문을 마친다니 믿을 수가 없다. 논문이 끝나도 계속 도예를 하려고 한다. 논문이 끝나가는 기념으로 내가 이번 논문에서 느낀 점과 힘들었던 점을 적어보겠다. 먼저 느낀 점은 도자기를 만들 때는 흙이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았는데 흙뿐만이 아니라 유약의 색이나 유약이 어떤 식으로 씌어 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유약도 중요한 몫을 하는 구나를 깨달았다. 그런 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 다음에 다른 작품을 만들게 되면 다양한 유약과 다른 종류의 흙끼리 조합도 해보고 꼭 그릇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작품을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도자기를 만든다는 게 되게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전혀 아니다. 물레도 배우는데 오래, 꾸준히 한두 달 정도해야 느는 것이다. 물레를 찰 땀 힘이 많이 들어간다. 나는 물레를 차다가 중간에 손에 마비 비슷한 게 자주 와서 손을 잠깐 동안 못 움직이고 저릿저릿하고 힘들었다. 물레를 찰 땀 자기 힘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만큼 도자기를 만들 땀 많은 정성과 긴 연습과 힘이 들어간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 그럼 여기서 내 얘기를 마친다.

<감사의 글>

우선 나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논문 쓴다고 먹을 걸 준 예나, 논문 힘내라고 응원해준 조은이 희, 은솔이. 논문 쓰냐면서 나를 엄청 놀렸지만 본문 쓰는 걸 봐준 서준이, 내 논문 하소연을 들어준 재하오빠, 설문지를 돌리려고 설문지 종이를 만들 때 도와준 우제오빠, 내가 봄 언니 집에 가서 작품을 만들기 위해 몇 일 동안 같이 먹고 잤는데 불편했을 텐데도 이해해주고 배려해준 봄 언니, 담이, 내 본문을 보고 평가해준 다운언니, 연지언니, 정민언니 정말 도움을 엄청 받았던 수정언니 (너무 고마워ㅜㅜ), 그리고!! 우리 자유분반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 논문을 썼다니,, 우리 멘토 반 공룡 반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작품을 만드는 데에 정말 큰 도움을 주신 봄 언니 부모님 두 분 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상 쌤..정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저가 항상 논문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을 때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아질 때가 많았어요! 우리 반 논문을 맡아주셨던 정호 쌤 정말 감사합니다ㅜ마지막으로 우리 엄마, 아빠 내가 힘들어 할 때마다 옆에서 힘을 줬다. 최고! 항상 감사합니다. 모두모두!!

<참고 문헌>

- 안현선(2012), 「도판 작업으로 학교 공간 아트 문패 만들기」,10학번 논문집
마틴 솔즈베리(2016), 『100권의 그림책』, 시공아트
신미영(2004), 『물레성형기법(내가 만드는 도자기)』,서울: (주)예경북스
홍지은, 문은진(2012), 『처음 만드는 도자기』, 서울: 즐거운 상상
권숙자(2012),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도자기 핸드페인팅1』,서울: SEEDPAPER
이진성, 노덕주, 이지연, 정재진, 이용석(2008), 『도자공예개론』,서울: 도서출판 예경
한홍곤(1997), 『도예기초실기』, 서울: 도서출판 예경

<부록>

1. 탐방 기록

도안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수원 행궁동에 있는 도자기 가게, 전시 등을 보고 왔다. 여러 가지 종류의 도자기를 보고 왔는데 탐방을 하고 나를 표현하는 그릇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정했다. 처음엔 막연히 눈으로만 보면서 다녔는데 도예가가 아니지만 취미로 도예를 하는 분을 만났다. 그 분은 한 사람만 자세히 관찰하시면서 컵에 그 사람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렸다. 나도 그분에게 영감을 받아서 나를 표현하는 그릇을 만들게 되었다. 그 외에도 핸드 페인팅으로 그린 그림이나 안료를 사용해서 그린 컵 등 다양한 종류의 도자기들을 보고 왔다.



<그림 111>-탐방 사진1



<그림 112 >-탐방 사진2



<그림 113>-탐방 사진3

2. 일지

4.9-첫 계획서 쓴 날

오늘 드디어 논문 수업에서 계획서 쓰기를 했다.

너무 갑자기 준비도 없이 논문을 쓰게 되어 혼란스럽고 동기 부여도 잘 안되서 답답하지만 나름 잘 되가는 거 같기도 해서 기분이 좋은 날이었다.

4.14~15-계획서 진행 계획 까지 쓰고 카페에 올려 피드백 받음

가정학습에 집에 가서 이틀 동안 진행 계획까지 썼다. 나 나름대로는 길게 쓴 글 같은데 다른 애들 걸보니 '아 내가 짧게 쓴 거였구나' 싶었다ㅋㅋ 이제 정상 쌤을 찾아가 진행 계획을 수정하고 나머지 것들도 쓰면 될 거 같다. 그리고 주제를 사계절 그릇 만들기와 시간의 흐름을 담은 그릇 만들기 중에 무엇을 할지 고민 중이다.

4.19

논문 목차를 어떻게 쓰는지 수업을 들었다. 처음엔 이해가 잘 안 갔지만 다른 애들 걸 보고 정호 쌤에게 물어봤더니 잘 알려주셔서 다행히 잘 쓸 수 있었다. 기지개 영상 보는 걸 빠지고 논문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듣기를 잘 한 거 같다.

4.20

금요일 3교시 논문 수업을 들었다. 참고 문헌을 어떻게 쓸지 배웠는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고 내가 그때 다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서 집중이 안됐다. 나중에 정신이 돌아왔고 참고문헌을 쓰는 법의 예를 써봤다. 수업을 듣고 난 다음 계획서를 썼다. 주제도 '시간의 흐름을 담은 그릇 만들기'로 정했다. 결국 '사계절을 담은 그릇 만들기'는 재껴졌다... 계획서는 이미 거의 다 완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마음은 좀 편했다. 지금까지 피드백 받으러 찾아간 쌤들을 세어보니 다섯 분이나 되었다. 사실 난 내가 지금까지 이런 걸 썼다 라는 것만으로도 내가 되게 자랑(?)스러웠다. 저녁엔 정상 쌤을 찾아가 피드백을 마지막으로 받고 지도교사 의견도 받았다. 그리고 계획서를 제출했다.

4.21

오늘은 발표할 ppt를 만들었다.

다 만들진 않았는데 키워드를 띄운 다음 설명하려고 한다. 발표를 잘 했으면 좋겠다.

내일은 설문지를 예시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

4.22~24

계획서 발표 날 읽을 대본과 ppt를 다 만들었다. 마지막에 ppt를 카페에 올리고 대본도 다 썼는데 대본은 프린트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서 손으로 다 썼다. 다음날 계획서 발표라니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4.25

오늘 논문 계획서 발표를 했다. 순서가 두 번째였는데 초반 때 였는데도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견/피드백을 다 받아 적었다.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해졌는데 본문을 써야한다.. 그리고 이번 가정학습 때 4일 동안 학교에 와서 정상 쌤과 물레를 연습할

예정이다.

4.26

설문지를 예시로 써서 카페에 올렸다. 근데 난 평가 설문이라서 딱히 쓸 필요가 없을 거 같았지만 정호 쌤에게 피드백을 받으려고 올렸다. 어떤 식으로 설문을 해야 할지 아직 감이 안 오는데 작품 전시를 보러오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돌릴 예정이다. 29일에는 도자기 축제를 간다. 재밌을 거 같고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면 좋겠다.

4.29

오늘 이천 도자기 축제와 이천 세계 도자기 센터를 다녀왔다.

논문 아이디어도 참고 할 겸 다녀왔는데 예쁜 그릇이 진짜 많았다.(사진 123장 찍었다) 작가들이 전시를 해놓고 팔기도 했는데 색이랑 일러스트가 예쁜 그릇이 많았다. 참고 할 만 한 작품들도 많았다. 사진과 팸플렛 자료를 많이 가져왔다. 더웠지만 유익한 정보를 알아올 수 있는 시간이었다.

4.30

오늘은 작업장 수업에서 초벌 하는 과정, 유약 바르는 과정, 재벌에 대해서 배웠다.

도자기를 굽는 과정(초벌에서 재벌까지)

1.초벌은 유약을 바르거나 안정적인 재벌을 하기 위해 700도에서 900도 소성한다.

2.유약을 바른다.

3.재벌(마지막으로 굽는 과정으로 1200도에서 1300도 소성한다.)

유약은 건더기가 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 체에 손으로 걸러낸다.

오늘 작업은 유약을 체에 걸러내는 작업을 했고 주현 쌤이 우리 작품에 유약을 바르시는 것까지 봤다. 우리 작품이 내일 가마에 들어가면 대동제 전 목요일에 작품이 나올 것 같다.

5.2

저번에 논문 계획서 발표 때 사람들이 내 계획서에 대해 피드백을 해줬는데 대 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한 걸 오늘 정리를 해서 정상 쌤이 나에게 정리한 내용을 줬다. 내용을 보니까 '작품 논문으로서 내 논문작품이 충분한 분량인가?' '설문지를 굳이 두 차례나 돌리는 이유는 무엇인지'등등이 있었는데 논문 작품은 원래 4개~6개로 하려 했으나 너무 양이 적은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10개를 해보려고 한다.(아직 담당 쌤에겐 얘기 못함) 그리고 설문지는 작품 발표회를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만 나눠 주려고 한다. 오후엔 창기오빠가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 '진저티 프로젝트' 라는 회사(?)에서 우리 학교로 강의를 하러 왔다. 강의 내용 중에 창기 오빠가 '논문을 잘 쓰는 방법'도 있었는데 달력에 논문 일정을 계획 해두는 것, 메모/기록 많이 하기, 피드백은 상대가 아무리 기분 나쁘게 평가를 하더라도 악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말기 등등이 있었다. 강의를 들으며 창기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았고 내가 참고 할 점이 많아진 것 같았다.

내일은 가정 학습 때 물레로 찰 흙을 물이랑 섞었다가 말려두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다음 주 가정학습 주간엔 도예 관련 책을 살 예정이다.

5.3

가정학습 때 물레 찰 흙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말려두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물레도 한번 돌려봤다. 생각 보다 힘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고 흙의 중심을 잡는 게 제일 중요했다. 중심을 잡으면 손에 힘을 주면서 위로 올렸다가 윗부분이 어느 정도 원뿔 모양으로 만들어지면 다시 뭉개는 작업을 반복했다. 일단 중심을 잡아야지 흙을 흔들리지 않고 잘 올릴 수 있어서 그 작업만 반복했는데 손끝이랑 엄지와 검지 사이가 힘이 세게 들어갔다. 다 하고 나니 손이 막 떨렸고 손에 근육통이 올 거 같았다.. 힘든 작업이었지만 계속 하다보면 나중엔 그릇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물레를 계속 찼다. 가정 학습에도 열심히 차야겠다.

5.8(가정학습)화요일

오늘 학교로 와서 물레 연습을 했다. 앞으로 2일간(목요일 까지) 할 예정인데 가정 학습이 가정학습이 아니라 주말이 되었지만 물레는 꾸준히 연습해야 될 것 같았다. 저번에 짧게 배웠던 방법으로 원뿔이 되게 올렸다가 뭉갠다가를 계속 한 시간 동안 반복했다. 정상 쌤이 3일 동안 옆에서 오전에만 봐주겠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나 혼자 했다. 근데 저번보다 나아진 게 없었다. 중심이 잘 안 잡혔고 저번보다 흙이 더 많이 부러져나갔다. 내일 정상 쌤에게 피드백을 받고 집중을 잘 해서 만들어봐야겠다.

5.9(가정학습)수요일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나 학교로 가서 물레 연습만 계속 했다. 오늘 거의 하루 종일 물레만 찼는데 연습을 계속 해서 그런지 이제 그릇을 어설프게 라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수전증, 근육통이 사라졌다.. 그래도 아직 원 뿔 모양으로 흙을 올릴 때 중심이 잘 안 잡혀 힘들긴 하다. 정상 쌤은 이제 디자인 구상을 해 보라고 하셨다. 내일이 집 가는 날인데 마지막 까지 열심히 하고 가야겠다.

5.10(가정학습)목요일

물레연습 마지막 날, 아침부터 계속 연습했다. 컵이랑 밥 그릇, 접시 정도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와이어 끈으로 완성 물을 자를 때 기울지 않고 평평하게 잘려야 하는데 자를 때 마다 삐뚤게 잘린다. 이건 계속 연습 해야겠다. 마지막 날인데 제대로 연습도 못해보고 일찍 집에 간 것이 아쉽지만 이틀 동안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 도자기에 관한 책을 주문했고 이제 방문 및 탐방을 어디로 가야할지 생각해 봐야겠다.(본문도 조금씩 써야겠다...)

5/16

어제는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서 공책에 적어봤다. 논문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소주제를 정해봤다. 안에 월 별로 그릇을 12개 만들어 키워드를 한 개씩 뽑아 그에 맞는 그림 도안을 그리고 키워드에 맞게 그림을 잘 그렸는지 평가(?) 설문지를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적어보니 마음도 편해지고 정리가 잘 되는 느낌이었다. 물레도 작업장 때가 아니어도 나름 꾸준히 연습하고 있다.

5/17

머리가 너무 복잡해졌다. 논문에, 타 대안에, 제주도... 너무 할게 많은데 논문 생각을 하자니 답답해져서 정상 쌤을 찾아가 내가 어제 생각했던 소주제를 얘기해봤다. 우선 그릇은 무빙 다녀오고 그 후 2주 가정학습 때 학교를 와서 한 주 동안 만들 것 같다. 그리고 도안을 최대한 많이 그릴 것이다. 그리고 왜 이걸로 그렸는지 그런 이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다. 이제 주현 쌤에게서 백토를 구입해보려고 한다.

5/23

오늘은 소주제를 확실히 정했다. 제발 이거 뒤에 주제가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선 월 별로 그릇을 만드는 건 그대로인데 1,2월은 겨울방학이고 7,8월이 여름 방학이라서 설문조사에 '겨울방학하면 생각나는 것은?'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 하다는 느낌이 들어 그 네 개의 달 중 두 달은 1월 2월 7월 8월이 아니라 '나의 방학'으로 키워드를 정했다. 내가 방학 때 어떻게 지냈는지 그려 보려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두 달은 학교에서의 내 일상으로 그려보려고 한다. 나머지 3,4,5,6,9,10,11,12월들은 마인드맵을 해서 대표적인 학교 일정들을 뽑아 그걸로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예)4월 전야제 하면 생각나는 것은?

마인드맵은 이미 다 했고 이제 설문지를 작성해야겠다. (주현쌤 에게 백토를 구입하는 건 아직 미정.)그리고 물레 연습도 했다. 흠 한 덩이만 했는데 할 시간이 너무 적어서 집중을 잘 못했던 것 같다.

5/29

오늘은 본문을 시작했다.

써보면서 좀 헛갈리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서 궁금한 점은 정상 쌤에게 찾아가 물어볼 예정이다.

5/30

본문을 썼고 원래는 설문지를 돌리려했으나 명확한 답도 안 나오고 사람들이 내가 한 질문들에 답을 다 못해줄 것 같아 가정학습 가기 전 이틀 간 대자보를 붙여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 보려 한다. 그리고 설명과 함께 대자보를 붙였다.

6/28

오늘이 무빙을 다녀오고 나서 처음 쓰는 논문인데 내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무엇을 했는지를 가지고 도안 구상을 했다. 그림 실력이 엉망이었지만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 썼는데 뭐라도 했다는 생각에 착잡했던 기분이 좀 나아졌다. 이제 할 일은 책을 찾아 자료 모으기 본문쓰기, 디자인구상 마저 하기, 방학 때 그릇 만들기다.

7/2

학교 와서 대자보를 떼었다. 물레를 찼다. 실력이 줄지 않아서 다행이었고 이제 그릇을 계속 만들어 봐야 한다. 정상 쌤을 만나 내가 한 것들을 점검했다.

7/3

설문대자보를 정리했다. 대자보에 사람들이 써준 말들을 다 적고 그 중 어떤 걸 도자기 그림

에 넣을지 골라냈다.

7/4

사람들이 써준 말들을 가지고 그림판으로 도안구상을 했다. 노트북으로 1차를 그리고 공책에 한번 더 2차로 그릴 예정이고 방학가기 전에 도안 구상이 끝나야 하는데... 최대한 열심히 그려야겠다.

7/5

도안 구상을 했고 어제와 다른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논문 모임을 했다.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를 발표(?)했다. 방학 끝나기 전까지 그릇12개를 다 만들기로 했는데...가능할지 모르겠다.

7/8

도안을 그렸다. 7/5일엔 4.19 4.16(1)마라톤을 주제로 그렸고 7/4일엔 노작의 날 (1)도안을 그렸다. 그리고 오늘은 개학주간(1) 도안을 그렸다.(그림판으로)

7/9

오늘은 내가 방학 때 갈 탐방, 인터뷰갈 곳을 알아봤다. 갈 곳은 많다. 물레 연습을 해야 하는데 요즘 잘 안 해서 걱정이다. 이번 주 안에 물레를 몇 번은 더 차야겠다.

7/10

물레연습을 했고 그릇 두 개를 만들었다. 중심 잡기는 잘 되었는데 그릇 만들기가 어려웠다. 만들어본 그릇이 좀 작아서 그림이 들어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4.19,4.16마라톤(2)도안을 1차로 그림판에 그렸다.

방학 때 물레 돌릴 여건이 학교에선 안 돼서 봄 언니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일주일동안 봄 언니 집에서 자면서 물레를 돌리고 그릇을 만들 수 있는지 부탁을 드렸다. 뭔가 내가 배울 점도 있고 인터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좋아서 부탁 드렸는데 내일 다시 연락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발 됐으면 좋겠다.

7/11

오늘은 4.16,4.19(1,2)/노작의 날(1,2)/개학주간도안(1) 그린 것을 종이에 2차로 그려봤다. 오늘 봄 언니 부모님이 나하고 전화연결이 안 되서 내일 다시 연락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어제 만들었던 그릇 두 개의 밑굽을 평평하게 깎는 걸 했다. 이미 많이 굳은 상태라 깎는 게 좀 힘들었고 한 개는 깎다가 깨트렸다..평평하게 깎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처음엔 둥근 칼로 깎다가 좀 깎였다 싶으면 뾰족한 칼로 다듬으면서 깎는 방법인데 이것도 많이 해봐야 요령이 생길 것 같다.

7/12

오늘은 봄 언니 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려봤다. 일주일 동안 봄언니 부모님 작업실에서 물레를 차고 굽는 걸 허락해주셨다. 너무 기분이 좋았다. 일주일 동안 뭐 할 건지 계획을 짜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다. 도안 구상도 해야 한다. 봄 언니 부모님과 기말축제가 끝나고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10학번 현선 언니의 도판 아트 문패 논문을 보고 도자기 용어, 그릇을 만들 때 필요한 기구들을 설명과 함께 적어봤다. 그리고 기숙사에 와서 본문을 썼는데 원래는 열두 달을 하고 방학이 있는 달은 나의 방학으로 그리려 했으나 그렇게 되면 네 달을 방학만 그리는 거라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두 개만 내 방학을 주제로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학교에서의 내 일상을 그리기로 하였다.

7/18

방학 하고나서 처음 쓰는 논문이다. 방학식 때 봄언니 부모님을 만나 얘기를 해봤다. 8월 초에 봄언니네를 가기로 했고, 그 전까지 스케치, 도안 구상을 많이 해야 한다. 그리고 1차로 학교에서의 내 일상(1)을 그렸다.(그림판으로)

7/20

개학주간을 주제로 한 그림을 좀 수정했다. 3간디 음악제(1)를 주제로 한 그림을 1차로 그리는 중이다.(그림판으로) 그리고 노작의 날(3) 그림을 추가로 한 개 더 그려봤다.(그림판으로) 근데 나머지 입학식, 졸업식, 가정학습, 무빙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모르겠어서 걱정이다.. 내일쯤 도서관을 가서 논문에 도움 되는 책을 찾아봐야겠다.

7/21

오늘 생각을 하다 보니 1년 그릇을 만든 다고해서 꼭 12개의 그릇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그동안 고정관념에 박혀 있었던 것 같다. 그릇 두 개를 이어서 한 작품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봤다. 그리고 삼 간디 음악제 그림을 1차 그림판으로 완성했다. 봄 언니 부모님이 다음주 29일에 올 수 있냐고 물어보셨다. 그래서 다음주 29일에 가기로 했고 그 전까지 도안을 많이 많이 만들어야 한다..(똑같은 주제로 그린 그림이어도 많이 그려놓고 중에서 고르려고 한다.) 도자기 책도 샀다.

7/22

원래 2차로 그렸던 스케치북이 갈색 스케치북이라 잘 안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오늘 흰 스케치북에 그림들을 옮겨 그렸다.

7/23

노작의 날(3) 과 4.19 4.16마라톤(1), 삼 간디 음악제(1). 내 일상(1)을 스케치북에 그렸다.(어제 다 안 그린 것들)

7/24

입학식(1)컨셉으로 한 그림과 내 일상(2)을 그린 그림을 그림판에 1차로 그렸다.

7/25

오늘은 탐방을 다녀왔다. 갈 때 인터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었고 질문을 생각 해 논 것도 없어서 일단 가기만했다. 수원 행궁동에 '공방 길'이 있는데 거기 도예를 하고 계시는 도예가분들이 많았다. '화성 사랑' '향기 도예' '임 아트 갤러리' 이렇게 총 세 군데를 다녀왔고 내가

하고 있는 논문 주제를 말씀 드렸더니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머그컵 같은 것도 괜찮겠다고 하셨고 대부분 중학교 때 논문을 쓰냐고 놀란 반응이셨다.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아서 많은 대답을 얻진 못했다. 그리고 엄마의 아는 분이 운영하시는 '땅콩'이라는 카페에 차민희 라는 사장님이 도예 가는 아니지만 취미로 도예를 하고 있다고 하셔서 들려봤다. 그 분은 누구 한명을 자세히 관찰을 해서 그 사람을 표현한 컵을 만드셨는데 표현 방법이 너무 재밌고 그걸 보니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오늘 엄청난 성과나 제대로 된 인터뷰는 하지 못했지만 아이디어는 많이 떠올라서 좋았다. 나도 나를 표현하는 그릇을 한 개를 추가로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입학식(2)과 나를 표현 하는 그림을 그림판에 그려봤다.

7/26

가정학습이 주제인 그림을 그림판으로 2개 그렸고 개학주간이 주제인 그림 한 개 더 그림판으로 그렸다.

7/28

오늘은 봄언니 부모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월요일에 수원과 가까운 용인(?)쪽에 하루 동안 일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화요일에 봄언니 집을 가기로 했다. 내가 지금 그림100장은 그렸어야 했다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그림판으로 도안을 그렸다. 가정학습3, 개학주간3, 내 방학1, 내 방학2, 내 방학3, 노작의 날4, 무빙1, 4.19 4.16마라톤(3)을 그렸다. 너무 힘들었다...

7/29

오늘은 3간디 음악제2, 개학주간4, 내 방학4, 내 방학5, 무빙2, 무빙3, 졸업식1, 졸업식2, 졸업식3을 그렸다.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 좀 힘들었다. 내일은 더 빠르게 그려야겠다.

7/30

오늘 마지막 작업을 열심히 했다. 3간디 음악제3, 나를 표현한 그림2, 내 방학8, 내 방학6, 내 방학7, 내 방학9, 내 방학10, 내 일상3, 내 일상4, 내 일상5, 무빙4, 입학식3, 가정학습4를 그렸다. 너무어어어무 힘들었다. 한 3일동안 빠르게 새벽까지 그렸다.(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일지 쓰고 있는 지금도 새벽인데 힘들다,.. 여튼 지금까지는 45개정도를 그렸다. 오늘 아이디어가 떨어져서 멘붕 이었는데 계속 생각을 해서 나오긴 했다. 아침엔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 도서관을 가서 그림책을 빌려왔다. 책이 나름대로 도움이 되었다. 내일 봄 언니 집에 가는데 작품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7/31

오늘 봄언니 집에 왔다. 작업실이 좋았다. 봄언니 아빠는 도자기만 30년을 하셨다는데 너무 존경스러웠다. 그리고 멘붕이 왔다. 봄언니 엄마가 내 도안을 보시고 소재는 좋지만 왜 도자기에 그리는 건지가 없는 것 같다고 하셔서 그걸 추가적으로 본문에 넣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일단 만들어 보자고 하셔서 봄 언니 아빠랑 물레를 저녁까지 계속 찼다. 그릇과 컵을 열 개정도 만들어봤는데 그릇 밑 부분을 자르는 게 아직 어렵다. 그리고 작품을 중간발표 때까지 다 못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여기서 3박 4일(7/31~8/3)동안 작업하고 더 보충해야 할 게 있으면 그 다음 주에 다시 올 것 같다. 그리고 봄언니 아빠가 밑 부분을 자르는 방법과 그릇을 만들었을 때 그릇이 갈라지지 않는 방법을 배웠다. 그릇의 밑 부분은 나무칼로 자를 부분

을 그어 놓고 흙 자르는 실로 물레가 돌아가는 상태에서 짧게 줄을 잡은 뒤 흙에 대고 한 바퀴를 돌리면 그릇을 안전하게 잘 자를 수 있다. 그릇이 갈라지지 않는 방법은 흙을 원래는 세로로 세우고 물레를 찻는데 가로로 두고 차면 그릇을 만들었을 때 갈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대신 단점은 물레를 찻 때 흙이 꼬여서 중심을 잡기가 어렵다는 점... 여튼 충분히 배우고 내일은 그릇 모양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림은 어떤 식으로 그려 넣을 건지(입체, 상감 기법 등)를 구상해 볼 듯싶다.

8/1

오늘 정말 계속 물레만 찬 듯싶다. 그릇 밑 부분을 자르는 것도 좀 익숙해졌고, 봄언니 아빠가 많이 도와주신 덕에 요령도 생겼다. 그리고 그릇을 13개보다 더 많이 만들어 냈다. 어제 만든 것 중에 웬만큼 마른 건 뒤집어 놓고 말렸고 (뒤집는 이유는 골고루 마르라고) 굽을 깎기 적당한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마르면 안돼서 아이스박스에 넣어놓는다.(어제건 다 넣어 냈다.) 오늘 만든 건 3개 빼고 뒤집어 냈다. 그리고 오늘 작업실에 충남대학교 도자기 학과 임미경 교수님이 왔다가 가셨는데 혹시 작품평가를 해주실 수 있냐고 부탁을 드려서 해주시기로 했다. 연락처와 메일은 받은 상황이다. 작품이 다 만들어지면 연락을 드려야겠다. 사실 오늘 좀 무리를 한 게 아닌가 싶다. 하다가 잠깐씩 손에 마비? 비슷한 게 와서 손이 아프고 못 움직일 뻔 한 적이 있었다. 그래도 계속 하다 보니 괜찮아 졌다. 내가 물레를 찻 때 손을 어떻게 쓰는지 사진 촬영을 자세히 해야겠다. 내일은 오후에 작업을 하려고 한다. 큰 모양의 그릇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작은 찻잔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예뻐 것 같아 참고해볼 예정이다.

8/2

오늘은 오전은 쉬고 오후 세시쯤에 나와 물레를 찻다. 어제 만들어서 말려 놓 그릇들은 아이스박스에 넣었다. 그리고 입체적인 작품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저녁 봄 언니 집에 가서 어떤 식으로 흙을 붙여 입체적으로 만들지 내 그림을 골라 구상 하려고 한다. 내일은 굽을 깎을 예정이다. 굽 깎는 게 좀 어렵다고 했는데 굽 깎는 걸 실패하면 굽 깎는 것 대신 굽을 어떠한 모양 같은 걸로 조각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겠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쯤 다시 봄 언니 집에 와서 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지금까지 그릇은 34개 만들었다.

8/3

마지막 날, 입체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 흙으로 그릇이랑 컵에 전 날 구상해둔 모양을 만들어서 좀 말린 뒤에 붙였다. 붙이는 것도 방법이 있는데 붙일 흙 모형에 스크래치를 내고 붙일 그릇에도 스크래치를 낸다. 그 다음 스크래치를 낸 흙 모형에 흙물을 묻혀 그릇에 스크래치를 낸 부분에 붙이는 방법이다. 흙물이 풀(?)같은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굽을 깎는 건 처음에 한 개를 해봤는데 잘 하다가 그릇 바닥에 구멍이 나버렸다... 그래서 이 부분은 봄언니 아빠가 도와주셨다. 굽 깎는 건 한 몇 달을 해야 실력이 는다고 하셨다. 4시까지 그릇에 입체 모형 붙이고 깔끔하게 스펀지로 정리 해주고 집에 갔다.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와서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 봄언니 부모님이 너무 도와주셔서 감사했다. 아이디어도 떠오르게 도와주시고,, 진지하게 도예과 쪽으로 가볼까 생각중이다.

8/7

내가 그림을 그릴 그릇이 깨질 것을 대비해서 도안을 그렸다. 근데 두 개밖에 못 그렸다..(아이디어 고갈되었다..) 졸업식4와 노작의 날 5를 그렸다.

8/8

오늘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봄 언니네 왔다. 금요일에 집을 갈 예정이다. 그리고 그림은 상감으로 그릇에 표현했다. 그림 그리는 건 금방 끝날 것 같다. 그릇들 몇 개가 말리니까 바닥이 갈라진 그릇들이 몇 개 있었다. 13개 무사히 그리고 잘 구워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8/9

오늘은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렸다. 지금까지 그린 건 아홉 개다. 작은 그림을 표현하는 게 어렵다.(상감을 하면 그림이 같이 깎일 때가 있어서 어렵다.) 내일까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둥근칼이라는 엄청난 대박 텀(?)을 발견했다. 뽕족 칼로 그릇의 안쪽을 상감하면 그림이 다 없어지고 그릇이 울퉁불퉁 깎이는데 둥근칼로 상감하면 그 둥근 모양이 잘 살고 그림도 잘 나온다. 내일이면 작업이 끝나지만 둥근칼을 잘 이용해보아야겠다.

8/10

오늘 마지막 작업을 했다. 혹시 깨질 것을 대비해 같은 그릇 몇 개만 더 만들었다. 두개의 그릇이 한 작품인 그릇들도 몇 개 있다. 그렇게 다 세어보니 열여덟 개였다. 뿌듯했고 작업이 재밌었다. 작품이 깨지지 않아야 할텐데...걱정이지만 당분간 좀 쉬어야겠다. 작업하는동안 너무 재밌었다. 그리고 유약을 바르는 것과 초벌, 재벌을 부탁드리고 왔다.

8/18

본문을 조금 썼다. 막상 하려고 보니 뭐부터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다녀온 걸 정리해서 써야 하는데 언제 써야 하나 생각만 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써야 할 텐데 걱정이다.

8/26

학교에 왔다. 기숙사에서 다들 논문을 쓰길래 나도 계속 미룰 수는 없겠다 싶어 새벽에 본문을 쓰고 있다. 본문쓰기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남의 책이나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인용하는 것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용을 하고 어디까지는 못하는 건지 궁금하다. 근데 또 의문은 내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진 않으니 당연히 인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 이번 주에 병곤 쌤과 정상 쌤을 찾아가 궁금한 걸 묻고 정리할건 정리 해야겠다. 작품 열심히 만들었으니 본문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8/27

어제랑 그저께 동기와 목적, 연구 방법을 수정하고 미리강을 찾아가 논문 관련 상담을 했다. 상담을 하고나니 궁금했던 것들도 풀리고 마음이 편해졌다. 그래서 열심히 논문을 써야겠다고 다짐했다.

8/28

오늘은 병곤쌤과 정상쌤에게 찾아가 논문 관련 얘기를 했다. 병곤쌤에게 찾아갔을 땐 선생님이 잘 도와주셨으나 뭔가 왠지 모르게 나 스스로 작아지는 느낌이었다. 본문목차에 과정보다

도자기에 대해 설명하는 게 더 많아 보인다고 하셨다. 다시보니 그런 것 같았다. 병곤썸을 만나고와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강오빠가 논문 발표 얼마 안 남았다며 엄청 놀렸다..안 그래도 마음 안 좋는데.. 울 뻔했지만 참았다. 그리고 정상썸을 만나서 병곤썸을 만나서 얘기했던 것들을 말했다. 정상썸과 얘기하고 나니 본문이 무엇이 주가 되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깨닫게 되니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다. 그리고 논문 현재 진행사항 발표하는 걸 9월7일에 논문 수업에서 한다. 그래도 강오빠만큼 도움 많이 준 선배가 없다.

8/29

본문을 쓰고 미리강 한테 찾아가 진행 상황을 얘기했는데 도자기의 정의를 쓴 부분을 위키 백과에서 가져온 거라서 믿음이 별로 안갈 것 같다고 하셨다. 그래서 다른 책이나 학위논문 등을 찾아볼 예정이다.

8/30

오늘은 본문을 썼다. 물레의 정의, 물레선택 이유 등을 적었다. 도자기의 정의를 학위논문에서 검색해봤는데 딱 봤을 땐 도자기에 관한 정의가 적혀있지 않은 것 같았다. 뭔가 정의를 내린다는 게 어려운 일 같다. 정확히 어디서 인용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기숙사에 올라가서는 흙의 종류, 도자기의 종류, 도자기의 정의를 찾아봐야겠다. 이번 주 주말엔 물레를 선택한 이유, 물레 사용방법 등을 써야겠다.

8/31

오늘은 본문을 썼다. 본문 목차가 헛갈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사람들 말에 목차를 수정해 보려고 한다.(수정 안 될 수도..) 주말엔 집에 가서 논문을 써야겠다..

9/1

본문을 썼다. 본문 쓰는거 힘들다.. 집에 와서도 논문이라니.. 슬프다. 그래도 열심히 재밌게 해야겠다. 목차도 수정했다. 원래 물레의 정의나 물레 사용방법 그런 것들을 작품단계 전에 넣었는데 그렇게 되면 작품 단계를 얘기할 때 사용 방법이 또 나와야 한다. (내가 했던 과정을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물레로 만들었다는 사용방법이 나와야 하니까..) 그래서 목차를 수정했고 생각해보니 물레를 다 차고 난 후 그릇을 자를 때 사진을 못 찍어서 한번더 물레를 차서 과정 사진을 찍어야겠다. 내일모래 봄 언니네 엄마가 작업장 선생님이로 오시면서 내 작품을 들고 오신 댔는데 제발 안 깨져서 왔으면 좋겠다.

9/2

오늘은 내가 종이에 그린 도자기 도안을 본문에 넣기 위해 스캔을 떴다. 근데 그냥 카메라로 찍은 것 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아서 사진 찍은걸 넣기로 했다. 기숙사에 와보니 학교에 봄언니네 엄마가 내 그릇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다. 제발 안 깨졌기를 바란다..

9/3

오늘 도예실에 있는 내 작품을 보러갔다. 정말 다행히 13개 작품이 다 잘 나왔다! 너무 행복했다. 열 세 개가 다 나올지도 몰랐고 몇 개는 깨져 있을 줄 알았는데 열 세 개가 안전하게 다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릇바닥이 깨진 게 딱 한 개가 있었는데 깨질 위험이 있으

니까 그릇 만들 때 두 작품정도를 같은 그림으로 한 개 더 만들어놨었다. 근데 그 깨진 그릇이 같은 작품이 한 개가 더 있는 그릇이었다. 정말 운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만든 기물을 자를 때 사진을 못 찍었다. 그래서 그 부분 자르는 사진만 찍어야겠다..내일은 정상쌤을 만나야겠다.

9/4

오늘은 본문을 들고 정상쌤을 찾아갔다. 본문 목차가 어떤지 평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쌤이 도자기의 정의, 도자기의 종류 등등 도자기에 대해 소개하는 부분이 너무 긴 것 같다고 도자기의 정의는 모두가 아는 부분이 아니냐고 하셨다. 난 이해가 안 갔다. 논문엔 그 사람이 쓰는 분야에 대해선 조금이라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그리고 그 부분을 빼고 내가 작품논문으로 도자기를 쓰게 된 이유 가 필요한 것 같으며 얘기하셨고 내가 가끔 나만의 틀에 박혀 있는 것 같다고 하셨다.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기분이 우울해졌다. 그래도 정상쌤이 해주신 말은 참고할 건 참고하고 뺄 건 빼야겠다. 이제 중간발표PPT를 열심히 만들어야지..

9/5

오늘은 내일 논문 수업 발표에서 쓰일 ppt발표를 만들었다. 오늘 정오까지 올리는 건지 모르고 있었다가 급히 만들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 하고 있는 것, 앞으로 해야 할 것들로 목차를 만들고 ppt를 완성해서 논문 카페에 올렸다. 이제 발표할 때 쓰일 설명을 적어야겠다.

9/6

오늘은 논문 수업 예비발표ppt에 들어갈 설명을 적었다. 너무 길게 적은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하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했으니 만족한다. 내일 발표가 끝나고 나면 본문만 쪽 써야겠다.

9/7

오늘은 논문 수업에서 ppt를 발표했다. 정호쌤 에게 피드백을 받았는데 너무 ppt설명하는 말과 사진이 많다고 하셨고 그 외에도 여러 피드백을 받았는데 중간 발표 피피티는 여기서 내용을 조금만 줄이면 될 것 같다고 하셨다.

9/10

오늘은 계획서 양식에 본문에 들어간 수정한 동기, 목적, 연구 방법 등을 적었다. 정호쌤이 12일까지 계획서 수정한 걸주라고 하셨는데 정의 같은걸 인용을 아직 안 해서 참고 사이트에 참고한 사이트를 못 넣었다. 내일은 본문 목차를 보여드리러 정상쌤 에게 가야겠다. 이번 주 본문을 빠르게 해야지 싶다.

9/11

오늘은 계획서 수정을 마저 했다. 내일까지 내야 하는데 정상쌤 에게 아직 못 보여드려서 오늘 급하게 밤에 보냈다. 내일까지 계획서, 본문 목차가 정해질 것 같다. 본문 목차가 정해지면 그걸 토대로 본문을 쓸 예정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본문에 내가 물레를 차고 싶었던 이유 등

은 좀 적어났다. ppt수정, 작품 설명쓰기, 본문쓰기, 전문가 한분 더 섭외하기가 내 앞으로의 할 일이다.

9/12

오늘 계획서를 보내는 날인데 알고 보니 완전히 주제가 바뀌지 않았으면 계획서를 안내도 되는 거라서 계획서는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정상쌤 에게 본문 목차를 보여드렸고 이 목차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중간발표 ppt수정을 했다. 사진을 줄이고 설명이 짧게 들어갔다. 내일 우리 공룡반 에서 예비 중간발표를 한다. 그래서 오늘까지 중간발표ppt를 만들어 놓고 남은 시간동안 본문을 쓰려고 한다.

9/13

오늘은 공룡반 예비 중간발표를 했다. 피드백은 안 나왔다.

9/14

오늘은 논문 수업 두 번째 예비 발표를 했다. 난 저번에 해서 안 하고 지켜봤다. 중간발표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ppt수정할거 수정하고 본격적으로 본문을 써야 하는데 정작 본문은 못 쓰고 있다..내일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결혼을 하셔서 쓸 시간이 없다. 그래서 지금 본문을 조금 써놓은 상태이고 ppt 최종본을 다 만들고 본문과 함께 카페에 글을 올렸다.

9/18

오늘은 중간발표를 했다. 내가 첫 번째라서 발표를 금방 마쳤고 피드백은 나오지 않았다. 논문 중간발표가 끝나고 작품설명도 썼다.

9/ 20

오늘도 작품설명을 썼다. 네 개정도 썼는데 가정학습 가기 전에 다 써 놓으려했는데 아무래도 못 할 것 같다.. 가정학습엔 충남대학교 도예과 교수님에게 전문가 평가를 보내고 본문을 써야겠다.

9/22

오늘도 작품 설명을 썼다. 무빙을 표현한 그릇을 작품설명을 썼는데 전문가님에게 어떤 식으로 무빙에 대해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난감했다. 그래서 정상 쌤에게 도움을 받아 무빙에 대해 설명하는 짧은 소개 글(?)같은걸 먼저 썼다. 그다음에 작품설명을 썼다.

9/25

정신없던 추석과 이모할머니의 남편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는 것 때문에 작품설명 쓰는 게 뒤로 미뤄졌다.,, 맞다. 사실 변명이다. 나는 틈틈이 쓸 시간이 있었고 그럼에도 쓰지 못한 나 자신에게 실망이다,,,오늘 저녁엔 작품설명을 썼다. 빨리 이번 주 안에 설명을 다 쓰고 전문가님에게 보내야 하는데,,, 본문도 쓰고,,, 작품 설명회 때 쓰일 설문지 종이도 만들어야 하고,, 찢든 열심히 해야겠다.(사실 '열심히 해야 겠다'라는 생각만 몇 천 번을 한 것 같다.)

9/26

얼마 남진 않았지만 내일부터의 계획을 세웠다. 내일 오전은 작품설명 네 개를 쓰고 오후엔 세 개를 쓰는 것이다.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작품설명 정리 및 본문쓰기를 할 것이다.(전문가 평가를 해주실 충남대학교 도예과 선생님에게도 작품 설명과 함께 메일로 보내야 한다.) 오늘은 작품설명을 많이 썼고 충남대 도예과 선생님에게 이번 주 안으로 설명과 함께 사진을 보내면 작품 평가를 해주실 수 있냐고 물어봤다. 알겠다고 하셔서 이번 주 안에 작품설명을 다 써서 메일로 보내야겠다. 작품설명을 쓰는 건 너무 어렵다.. 사람들이 내말을 잘 이해해야 할 텐데 내가 설명을 잘 못 적는 것 같다.. 썼든 하는데 까지는 열심히 써야겠다.

9/27

별써 가정학습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미리미리 써둘걸.. 오늘은 작품 설명을 마저 다 썼다. 전문가 평가 나머지 한분으로는 주현 쌤을 생각해보고 있다. 내일은 작품설명 정리와 전문가 선생님에게 메일보내기, 작품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도안 소개를 간단하게 해야 할 것 같아 한 줄씩은 써놔야겠다. 본문도 써야하고. 할 일은 많은데 언제 다하지...

9/28

오늘은 작품설명 쓴 것을 정리했다. 이해가 되게 쓴 건지 오타는 없는지 등등을 보고 고쳤다. 오늘 작품설명만 들여다보니 다른 걸 들여다보지 못했다. 내일은 진짜 본문을 꼭 쓰고 도예과 선생님에게 메일을 꼭 보내야겠다.

9/29

오늘은 도예과 선생님에게 메일로 작품 사진과 설명을 보냈다. 그리고 본문을 썼다. 도자기의 종류, 흙의 종류 등등을 적었다. 써보니까 본문도 재밌게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일 가기 전에 학교에서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고 가야겠다.

10/1

오늘은 작품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도안을 간단하게 한줄 소개와 왜 넣지 않았는지 등등을 썼다. 도안은 45개라서 앞으로 많이 적어야 한다. 꾸준히 적어야겠다. 그리고 저녁엔 정상 쌤을 찾아가 작품설명 쓴 것을 보여드리고 어떤 식으로 작품을 배치해야 할지 생각하고 본문에서 도자기 종류를 책에서 인용한 부분을 보여드렸다. 나는 책에서 인용한 말들 중에 '백운 도기 질' 같은 이런 전문적인 것들을 아직 잘 모르는데 혹시나 발표 때 '백운 도기 질이 뭐예요?' 같은 질문이 나올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근데 정상 쌤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나마 내가 갖고 있던 걱정이 조금은 사라졌다.

10/2

오늘은 도안설명을 썼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열심히 써야겠다. 도안을 작품으로 안 넣은 이유를 써야 하는데 거의 다 '공감이 되지 않을 것 같았다.'와 비슷한 이유여서 전체를 묶어서 설명을 해야 하나 생각중이다.

10/3

오늘은 작품 설명회 때 사용할 대본과 도안 설명과 본문을 적었다. 그리고 덕래쌤을 찾아가 작품 설명을 좀 다듬었다. 작품설명회 때 어떤 식으로 대본을 써야 할지 모르겠어서 처음엔

조금 어려웠는데 내 그릇 구성을 알려주고 차례대로 설명하면 될 것 같다. 본문은 설문 대자 보에 관한 걸 적었다. 미리강쌤이 본문엔 정의 같은걸 인용하더라도 내가 아는 용어들로 풀어서 쓰던지 부록으로 용어만 나와 있는 걸 만들던지 해야 된다고 하셨다. 그래서 본문에 적은 어려운 전문 단어를 다시 한 번 점검해봐야겠다. 그리고 일단 작품 발표회가 코앞이니 작품 발표회 때 그릇 옆에 둘 설문 종이에 어떤 식으로 질문을 써야 할지 방법을 더 찾아봐야겠다. (내 의도대로 그릇이 잘 표현된 것 같냐고 물어볼지, 아니면 그림이나 그릇 같은 건 잘 만든 것 같냐고 아예 그것만 집어서 물어볼지 등등을 적어보고 그 중에 선택해봐야겠다.)

10/4

오늘 주현쌤 에게 전문가 평가를 부탁드렸다. 선생님이 지금 산청에 계시고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곳에 계셔서 몇일 뒤에 다시 전문가 평가를 확인 하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도안을 모두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다. 본문엔 몇 개만 설명을 넣고 그 이외에 몇 개의 도안들을 그렸다는 걸 적어야겠다.

10/5

주현쌤이 메일이 오지 않았다고 하셔서 다시 보내드렸다. 그리고 내일 작품 발표라서 발표할 것들을 다 준비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준비하는거니까 너무 힘들었다. 3교시부터 저녁도 안 먹고 작품 발표회 준비만 했다.

10/6

오늘은 작품 발표회를 했다. 돌아가면서 각자 자기가 만든 작품들을 설명하면서 질문을 받는 시간이었는데 내가 발표했을 때 질문들이 몇 개가 나왔다. 물레를 차는 걸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적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하셨고 다른 모양이 아니고 굳이 왜 그릇과 컵으로 만들었는지, 만들 때 감정은 어땠는지 등등을 질문해주셨다. 나 같은 경우, 과정을 적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작품 발표회를 끝내고 평가 종이에 평가를 많이 해주셨다. 이제 그걸 본문에 적고 '몇 명이 의견을 냈으며 이런 답들이 나왔다.' 정도로 적어야겠다.

10/8

오늘은 본문을 썼다. 책에서 인용한 문장들 중에 어려운 용어들의 뜻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평가 종이에 평가를 더 받았다. 그리고 이번 주 안에 충남대 교수님이 평가를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18일 전까지 주현 쌤이 보내 주신다고 하셨다.

10/9

본문을 조금 쓰고 본문에 들어갈 사진들을 옮겼다. 내가 담고 싶은 시간의 흐름과 작품 논문을 도자기로 쓰는 이유를 적었다. 본문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각주 다는 방법도 알았다. 본문이 8번까지 있는데 4번까지 밖에 안했다...이걸 다 쓰는 게 가능할까?

10/10

오늘도 본문을 썼다. 5번부터 쓰기 시작했다. 지금은 물레 성형방법을 쓰고 있는 중이다.

아침열기 때 정상 쌤이 본문은 이번 주 안으로 끝내놓으라고 하셨다. 세상에... 가능 할 것인가... 이러다가 정말 정신이 나갈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근데 애초에 다음 주엔 할 일이 많아서 논문을 쓸 시간도 없을 것 같다. 13일엔 3간디 축구, 17일엔 작업장 탐방, 18일엔 3간디 음악제에다가 본문 제출일... ppt는 언제 만들지... 이번 주 안에 엄청 빠르게 써야겠다. 아 그리고 충남대학교 도예과 교수님이 작품 평가를 보내주셨다. 완전 대학교 평가 같다... 길게 평가해주셔서 좋았다. 두 줄 만 칭찬이었지만 평가를 보내주시다니 너무 감사했다.

10/11

오늘은 본문을 썼다. 본문 목차가 바뀌었다. 그 전 목차는 작품 구상/작품 단계에서 설문 대자보 다음 바로 '물레성형 하는 방법'이 나온다. 뭔가 흐름이 끊기는 것 같고 설문 대자보 다음엔 스케치를 했는데 바로 물레로 넘어가 버리니까 되게 부자연스러웠다. 그래서 설문 대자보에 스케치를 덧붙여서 '설문 대자보와 스케치'로 바꿨다. 또 그림 설명에 원래 도안 설명/작품 설명이 들어갔는데 도안 설명이 작품 설명이랑 다를 게 없어서 도안과 작품 설명으로 바꿨다.(작품 설명과 그릇사진 옆에 그림판으로 그렸던 작품 도안사진을 넣으려고 한다.) 지금 5번을 쓰고 있지만 '내가 담고 싶은 시간의 흐름'과 '물레의 정의' '흙의 종류'를 조금 고쳐야 하고 '도자기의 종류'에서 내가 모르는 용어들이 많아서 그걸 찾아봐야겠다. 본문이 8번까지 있는데 아직 할 건 많다. 오늘도 글을 계속 쓰다가 밑에 있는 사진들이 다 밀렸다... 내일 논문 수업이 있으니 그걸 듣고 고쳐야겠다. 이번 주말 안에 다 끝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는데까지는 최선을 다 해야겠다.

10/12

오늘은 논문 수업에서 글자 교정(?)과 글씨 크기 등 본문에 쓰일 여러 가지를 배웠다. 같이 해보자고 하셔서 따라 하긴 했는데 너무 어렵고 정신이 없었다.. 내가 컴맹이라서 배워도 금방 까먹고.. 컴퓨터는 할 때 마다 어렵다... 그래도 이번 수업 안 들어 왔으면 큰일날 뻔 했다. 엄청 중요한 걸 배운 수업 이었다. 끝나고는 주현 이와 덕산을 나가서 빵카페에서 본문을 썼다. 아까 수업에서 가져온 글자가 다 크기가 정해져있는 본문 양식에 원래 있던 본문을 옮겼다. 논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10/14

본문을 썼다. 어제는 3간디 축구를 가서 시간이 없어 하루 종일 쓰지 못했는데 오늘은 다행히 시간이 많이 비어서 하루 종일 논문만 썼다. 굵깍기를 하는 방법까지 썼는데 20페이지가 나왔다. 근데 흰 여백이 좀 많은 것 같다. 이걸 다 만들고 정호 쌤을 찾아가서 물어봐야겠다. 내일 모래쫄 본문이 다 완성될듯하다. 내 본문은 사진이 많아서 페이지 수가 많이 나온 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나 많이 했다니 뿌듯하다. 남은 시간 열심히 해서 본문을 마쳐야겠다.

10/15

오늘도 본문을 썼다. 이제 거의 다 본문이 끝나간다. 오늘 중간점검으로 정상 쌤을 찾아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했다. 내일이면 본문이 다 끝날 것 같다. 정호 쌤이 담당교사 서명 없는 본문 안 받는다고 하셔서 다 쓰고 정상 쌤을 찾아가서 한 번 더 점검 받고 끝내야겠다. 내가 본문을 잘못 쓴 걸 까봐 좀 두렵다. 다시 다 고치라고 하시면 어찌지... 썼든 내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본문을 써야겠다.

10/16

오늘은 너무 힘들었다.. 하루 종일 논문만 쓴 것 같다. 미리강 에게 본문을 보여드렸다. 미리강은 토기, 도기, 석기등 설명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미지로 첨부해서 넣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귀가 얇은 것 같다. 참고하려고 목학에 사진을 찾아봤는데 인용할 사진이 다 블로그 같은 곳에나 있고 별로 믿지 못할 곳들에 있어서 사진 첨부는 뺐다. 근데 나는 이런 부분에 약해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한 말을 그냥 적용해버린다. 나도 내가 너무 귀가 얇은 게 맘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사진을 넣지 못해서 목학 내내 우울했다. 지금은 본론은 다 썼다. 여백이나 편집 같은 건 정호쌤 에게 메일을 보내서 피드백 받고 수정해야겠다. 이제 결론만 적으면 끝이다.

10/17~18

진짜 하루 종일 본문만 썼다. 결론만 적으면 되는데도 이렇게 힘들 줄이야,, 밤을 샜다. 3간디 음악제인데 너무 피곤하다. 본문은 부록까지 다 쓰긴 했으나 나에겐 피로만이 남아있다... 18일은 퇴고를 마지막으로 하고 제출해야겠다.